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부산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연구
-KBS<열린채널>을 중심으로



2014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남태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부산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연구
-KBS<열린채널>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한혜경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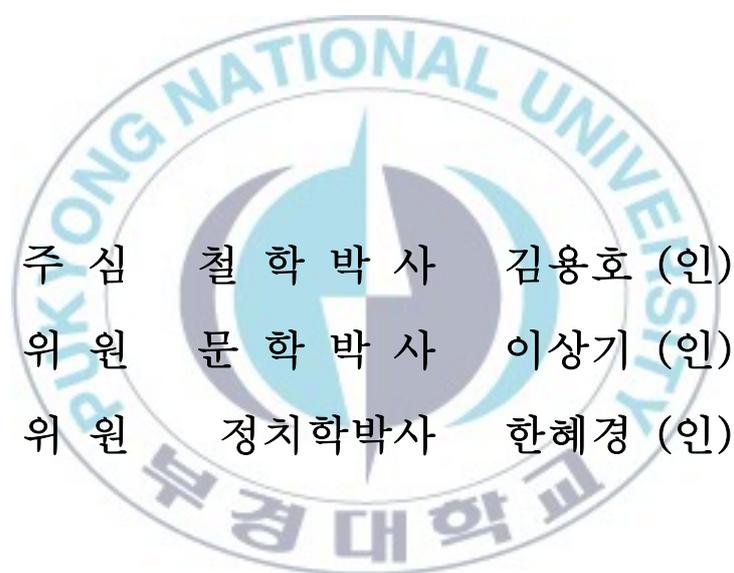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남태수

남태수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주 심	철 학 박 사	김용호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이상기 (인)
위 원	정치학박사	한혜경 (인)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및 문제제기	1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6
1.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6
1) 방송의 공익개념	6
2) 방송공익의 근거	8
(1) 공공수탁이론	9
(2) 공리주의적 방송공익론	10
(3) 공론장-숙의민주주의론	10
2. 방송 공익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와 퍼블릭액세스	13
3. 지역방송의 공익성	21
1) 지역방송의 역할	21
2) 지역성 개념의 변화	24
(1) 지리적·공간적 지역성 개념	24
(2) 사회·문화적 지역성 개념	26
3) 지역방송의 새로운 역할 : 지역의 공론장	27
4. 지역 퍼블릭액세스	31
제3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37
1. 연구문제	37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8

제4장 연구 분석 결과	42
1. 《열린채널 부산》의 지역성	42
1) 지리적·공간적 지역성 : 지역소개	43
(1)지역 문화 소개	43
(2)지역 명물 소개	44
2) 사회·문화적 지역성	45
(1)지역 시민사회 활동 소개	46
(2)지역민의 삶에 접근	48
①지역민의 일상	48
②지역의 소외계층	50
(3)지역의 공공정책 감시와 지역의제 제시	52
①지역 공공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52
②지역 공공 정책 비판	53
③지역 공공 정책 제안	54
2. 《열린채널 부산》의 다양성	55
1)제작자 · 출연자의 다양성	56
(1)제작자의 다양성	56
(2)출연자의 다양성	59
2)내용의 다양성	62
3)노출의 다양성	64
3. 《열린채널 부산》을 통한 지역 공론장 형성	65
제5장 결론 및 제언	72

표차례

<표1>시장서비스 모델과 공공서비스 모델 비교	7
<표2>공동체 라디오 현황 -2013.12월 기준	15
<표3> 국내 시민참여 미디어 유형 및 운영구조	17
<표4> 현행 방송법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관련 조항	19
<표5> 지역방송 자체편성 현황 - 2011기준	23
<표6> 지역 프로그램의 로컬리즘 형태	26
<표7> 사회의 영역들	29
<표8>지역방송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편성 현황과 기획의도 · 33	
<표9> 주제 분석 유목	41
<표10> 프로그램 제작자 현황	56
<표11> 연령별 참여 현황	58
<표12> 성별 참여 현황	58
<표13> 출연자 분포	59
<표14> 주요 등장인물 유형	61
<표15> 주제별 프로그램 분류	62
<표16> 열린채널 부산 편성 변화	64

그림차례

<그림1> 시민미디어의 범주 및 유형	14
<그림2> 공론장의 유형화	30

참고문헌	77
------------	----

부록	85
----------	----

국문초록

다매체·다채널 시대 규제완화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방송의 다양성을 해치고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 올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매체·다채널 시대 기존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풍부한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인 《열린채널 부산》의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진행 하였다.

분석 결과 《열린채널 부산》은 크게 지역소개를 바탕으로 하는 지리적·공간적 지역성과 지역민의 삶의 이야기, 지역의 공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하는 사회·문화적 지역성을 두루 구현하고 있었다.

다양성은 제작자·출연자, 내용, 노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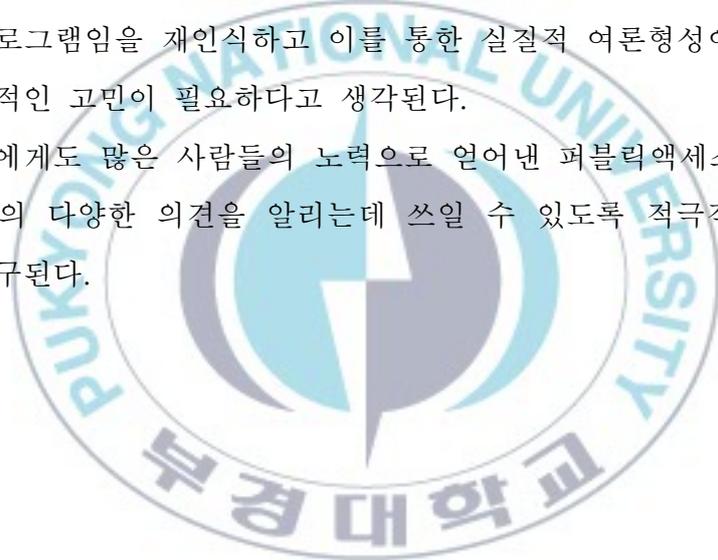
제작자는 일반시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생과 시민 제작단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출연자는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장애인·성매매여성·다문화 가정·비정규직 교사 등 사회적 약자들도 다수 출연하여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목적인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잘 구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열린채널 부산》의 편성변화와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한 노출의 다양성 분석 결과 주말 오전에서 평일 낮 시간대로 편성시간이 변경되었고, 생방송 이외에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노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열린채널 부산》이 지역의 공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의 형태를 통해 기존의 정치적 공론장 형성에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제작자들이 참여를 통해 개별 소비자에서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적친밀/프라이버시 공론장 형성 가능성과, 다양한 지역민의 삶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통해 여러 계층의 고민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다원주의 공론장을 형성하는데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풍부한 공론장 형성에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유효한 프로그램임을 재인식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리는데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제1장 서론 및 문제제기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플랫폼의 개발, 새로운 기기의 등장은 방송과 통신 영역의 경계를 허물며 기존의 전통적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 시대를 넘어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시대를 ‘지상파 방송의 위기 시대’ 라고도 하지만 지상파 TV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이다.

2013년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체 계열들의 합산 영향력 점유율 산출결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계열이 상위 3대 매체계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계열의 합산 점유율(CR3)은 47.2%로 나타났다. 특히 공영방송 KBS 계열의 매체합산 영향력 점유율은 29.0%로 다른 지상파 방송 계열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여론 형성과정에서 모든 매체 부문을 망라하여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2013). 이 같은 결과는 지상파 방송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지상파 방송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전파의 주인인 국민 전체에게 이득이 되는 방송이 되어야 하고, 이는 방송에 대한 공적 감독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김용호, 1994). 다매체·다채널 시대 방송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는 진행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의 지배적 영향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구현을 위한 방송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국내에서는 2008년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¹⁾

이런 논란 속에 <뉴스타파>, <고발뉴스>, <국민TV> 등의 대안적 미디어에 대한 후원이 늘어난 것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지만 현재 지상파 방송이 그러한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적 미디어는 접근성이 떨어져 개인의 기호나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신과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반면 전통적 대중매체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거의 동시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수의 매체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선택성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그 특성상 다양한 공적 이슈에 대해 최소한 대립되는 양쪽 시각이 함께 담겨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의도적이든 우연히든 자신과 다른 의견에도 노출 시킬 수 있다(한혜경, 2011). 이는 방송을 통한 사회통합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방송의 공공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것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개념이 필요하다.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방송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방송 제도들의 근거가 된다.

1) 이명박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YTN과 KBS에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고 언론장악을 추진하였으며 그에 맞선 수많은 언론인을 해고 하였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2008년 '미디어 산업 발전 특별 위원회'를 꾸리고 7대 미디어 관련 입법 의제를 발의하여 현행 방송법에서 금지해 오던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과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 폭의 확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디어법을 2009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후 종합편성채널이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방영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미디어법도 통과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 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보여준 언론의 모습은 언론인 스스로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KBS 양대 노조가 김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윤석민·홍중윤·오형일(2012)은 기존의 공영방송과 관련한 연구를 바탕으로 방송공익 개념을 민주주의에의 기여(정치적/경제적 독립, 불편부당성, 공론장 기능 수행, 식견을 갖춘 시민양성, 다원성, 다양성,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 사회통합 등)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프로그램의 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 문화적 수월성 제고, 공동체적 정체성 강화 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목표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이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하고 특히 공론장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지역방송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공론장은 사회·문화·정치·경제적으로 긴요한 이슈의 쟁점과 관련된 논의와 주장들이 생성되고 부딪히는 공간으로 개개인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사적 영역이 아닌,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개방되고 합리적인 주장과 논쟁들이 공존하고 교환되는 장소이다. 즉 시민 다수의 접근과 참여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의견과 관점을 표현하고 교환하는 속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합의와 의미 구현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미디어 공공성 포럼, 2009).

지역방송 역시 이러한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의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교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방송은 지역을 중앙과 대비되는 곳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역은 하나의 공동체로 그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상충되는 삶의 터전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 공론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한혜경, 2012; 양혜승,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

다. 2011년을 기준으로 지역방송국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은 KBS가 7.8%, MBC가 8.00%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민방이 15.46%로 가장 비율이 높다²⁾. 그나마 자체 제작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지역의 축제나 먹거리, 지역의 명소들을 소재로 하고 있거나 지역 명사들을 초대한 토론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한선·이오현, 2012). 반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시민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는 사안들을 담고 있어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으며, 무엇보다 직접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론장 역할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프로그램 시행 전은 주로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제도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고(안정임, 1999; 이수영, 1999),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향이 중심이 되고 있다(최영목, 2001; 정상윤, 2001; 이상훈, 2001). 프로그램이 정착한 이후에도 정책적인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서 공공의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임순혜(2008)의 연구와 수용자의 입장에서 서사이론과 소재의 논리 전개 방식 등을 분석한 최석훈(2010)의 연구 정도가 있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특정 편을 선택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으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자는 기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제도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활발한 연구

2)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 분석, 방통융합 미래 전략체계연구 지정 2012-14 p.63~65

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되길 기대하는 공론장 개념이 이성적이고 공적인 영역에 집중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감성이나 사적의제와 관련된 부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하지만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들은 공적 의제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는 이전 정치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사적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차이와 적대도 정치의 영역과 범위에 포함 시켜 정치의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조항제·박흥원, 2010).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기존의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의 공론장 역할을 넘어 다양한 공론장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이를 밝히기 위해 공론장을 감성적이고 사적인 부분까지 확대하여 KBS 부산총국의 《열린채널 부산》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였다.

《열린채널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열린채널 부산》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방영 8년차를 맞고 있으며 총 71회 방송, 131편의 시민제작 프로그램이 방영된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자, KBS 지역 총국 중 유일하게 방영되는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용분석은 《열린채널 부산》이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이를 통한 다양한 공론장 형성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기존의 정치적 공론장을 넘어 사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의 공론장 역할을 통해 정치적 영역을 더욱 확장 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1) 방송의 공익개념

‘공익’이란 말 그대로 공적인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말한다. 그렇다면 공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공적인 것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공공성의 핵심개념인 공적(public)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방송의 공익 문제에 접근 하고자 한다.

공적(public)인 것의 어원은 라틴어 ‘pubes(어른)’로 이 단어는 ‘성숙’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의 성숙은 신체적 성숙뿐만이 아니라 ‘지적 성숙’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넘어 타인의 입장까지 고려하는 의미에서의 성장을 뜻한다.

공공성에 대한 현대적 용법을 포함한 종합적 이해는 Webster’s new College Dictionary(1981)에서 정의하고 있는 ‘public’의 의미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공적인 것이란 첫째, 국가 혹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일체를 규정하는 것. 둘째, 다수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 셋째, 정부나 국가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생활과 대립되는 모든 공식적 활동. 넷째,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 다섯째, 접근 가능성과 공유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공공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여섯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다(미디어공공성포럼, 2009).

현대 사회에서 공익은 주로 정치체제에 상응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원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공익은 국가로 하여금 개별적 기본권 보호를 의무화 하기도 하고 그러한 권리를 공공복리와 연계하여 개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범주가 되기도 한다(김진웅, 2003).

이러한 공익의 개념은 방송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³⁾을 의미한다. 이때 사용되는 방송전파는 공적 소유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진다. 방송공익은 이러한 공공성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송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 언론학회, 1995).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이 가지는 공공적 소유라는 특성으로 인해 생겨난 실천적 개념으로 다양한 방송 제도들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방송제도는 크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what they need)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what they want)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시장서비스 모델과 공공서비스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1> 시장서비스 모델과 공공서비스 모델 비교

	시장서비스 모델	공공서비스 모델
이론적 배경	자유주의 이론	사회책임 이론
방송제도	민영방송제도	공영방송제도
소유구조	사적소유	공적소유(국영+ 민영)
재원조달	광고수입	시청료(정부보조형태)
방송의 목적	이윤창출	공공의 이익 향상

3) 방송법 제1장 제2조 용어의 정리 [시행 2013.8.13.] [법률 제12093호, 2013.8.13., 타법개정]

장점	수용자의 선택성 보장	방송의 공공성 유지
단점	시청률 지상주의 광고주의 압력	전문가주의 국가에 의한 지배 위험

현재 우리나라 방송은 SBS와 지역 민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서비스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공영 방송 제도를 취하고 있다(KBS1, KBS2, MBC, EBS). 하지만 독일의 경우 방송법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 대한 공식적 위상은 매우 모호한 상태이다. 방송법 제43조에서 ‘국가기간방송’을 명시하고 있어 KBS는 공영방송에 해당하지만 또 다른 공영방송인 MBC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양 방송국 간에 차등적 위상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은 공영방송이라는 단일한 테두리로 묶어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며 특히 민영방송과 공영방송 간의 차이점도 발견하기 어려워 방송의 공익성을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의 공익성 부여에 관한 정당성은 다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부여되고 있다(김진웅, 2003).

다음 장에서 방송공익의 근거가 되는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방송공익의 근거

현행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송은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영목(1997)은 방송의 공익성을 사회책임론, 공공재 산업론, 공론장 이론, 참여민주주의라는 네 가지 범주로 제시한다. 한균태(2003)는 전통적 입장(전파 희소성에 입각), 시장 논리적 입장, 속의 민주주의적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김진웅(2003)은 수탁이론, 공론장이론, 속의민주주의, 시장경쟁이론으로 구분하고 있다. 임정수(2008)는 시장경쟁에 입각한 공익의 개념을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시청자 복지론과 보편적 서비스론으로 구분하고, 공익성을 크게 공공수탁론, 공리주의적 방송공익론, 공론장 이론으로 유형화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재구성하여 크게 세 가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방송매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공수탁이론,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공리주의적 방송 공익론,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방송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공론장-속의민주주의론 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공공수탁이론

공공수탁이론은 전파의 희소성 개념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사용되는 전파는 공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방송은 공공의 자산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성 구현이라는 의무를 부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파 자원은 공공재로서 자유재와 대비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공동소유가 필요한 공익산업으로 국가 혹은 이에 준하는 공적인 기관에 의해 통제를 받아왔다(최영목, 1997).

이러한 개념은 방송초기 이론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파의 희소성이 의미를 잃게 됨으로써 방송의 공익개념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파의 희소성 보다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에 기반하여 방송공익의 근거를 찾고자 하지만 이 또한 개별 방송 사업자의 상대적 영

향력이 하락하면 공익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냐는 반론에 답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공리주의적 방송공익론

공리주의적 방송공익론은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도덕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시청자 복지론과 보편적 서비스론으로 나타난다(임정수, 2008).

시청자 복지론 적 관점은 다채널·다매체 방송시대로 변화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시청자들의 선호(viewer preference)를 가장 우선에 두고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며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이 시청자 복지라고 보는 개념이다.

보편적 서비스론은 통신영역으로 부터 도입된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채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론은 앞서 설명한 공공수탁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방송의 공익개념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방송공익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함으로써, 지나치게 경험주의적이고 결과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임정수, 2008). 또한 다수결에 따른 이익을 보편적 이익인 공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의민주주의자들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다(김진웅, 2003).

(3)공론장-숙의민주주의론

공론장-숙의민주주의론은 방송이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장,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며 시민들의 참여를 중요한 공익으로 보는 관점이다. 숙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공론장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해 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하나의 공간적 은유로 사용된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에 의해 주장된 공론장 개념은 여론형성의 공간으로써 방송이 어떻게 민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규범적 이상을 제공한다(박홍원, 2005).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조변화 연구를 통해 고전적 의미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이분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의 개념을 제시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공영역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분리되기 시작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긴장관계에 있는 “여론과 같은 것이 형성되는 사회적 삶의 영역”(Habermas, 1964:61)으로 18세기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사회에서 살롱과 커피숍 등에서 진행된 문학모임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성격의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등장했다.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이 사회영역 내에서 살롱과 클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예적 공공영역’이 신문 및 인쇄물의 보급과 특히 시민혁명의 경험을 통해 ‘정치적 공공영역’으로 변화됨으로써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김재현, 1996). 하버마스는 정치적 공공영역의 이러한 형태를 부르주아 공론장이라 정의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여론 형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 하였다. 미디어는 공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적 시민들이 여론이라는 형태의 공적 집합체로 재구성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후 미디어는 공론장에 유입되는 사적 이해관계를 특권화하거나 보이콧 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예측시키는데 적절한 사회적 권력으로 변화되게 된다(Habermas, 1961; 2002, p.349).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공적인 이익인 것처럼 포장하여 언론을 통해 유포하면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상호 침투 되고 유착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가 특정한 권력과 자본에 의해 장악되면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미디어는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미디어를 통한 공론장은 재봉건화(Habermas, 1961; 2002, p.309)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제시한다.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공론장의 본질적 역할을 다시금 회복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버마스 공론장의 핵심원리는 공적 토론이 자유롭게 보장될 때 “더 나은 논증의 힘”에 의해 진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이념을 내포하는 이상적 담화상황은 선택기회가 균형적으로 주어지고 언어행위가 왜곡 없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적 의사소통체계를 포함하는 것이다(김재현, 1996).

이러한 공론장 개념은 숙의(deliberation)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발전한다. 숙의민주주의자들은 숙의 과정이 없는 다수의 결정은 반드시 공익과 일치하지는 않다고 보고 다양한 의견들은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다른 시민과 공적 사안에 관해 대화하는 것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학습할 수 있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한혜경, 2006).

공론장-숙의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으로 방송의 공익을 위한 정책적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공익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매체·다채널 시대 보편적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기존 지상파 방송이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형태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공론장-숙의 민주주의론의 입장에서 이후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2. 방송 공익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와 퍼블릭액세스

퍼블릭액세스는 전통적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하나의 제도⁴⁾로, “모든 시민에게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Habermas, 1974)는 하버마스 공론장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그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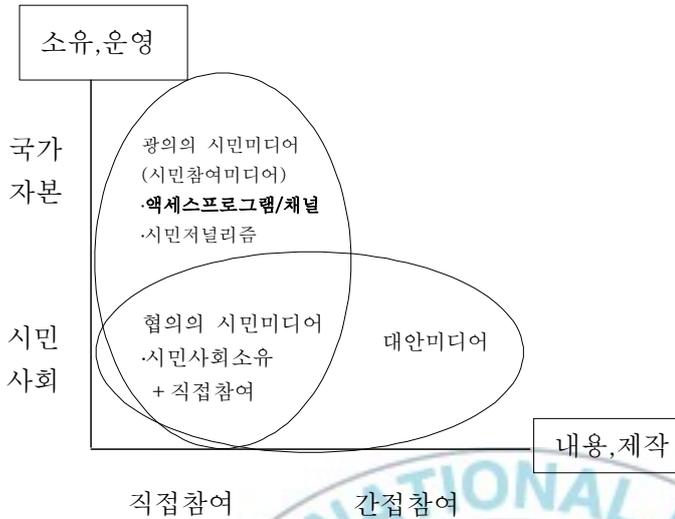
미디어를 통한 공론장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재봉건화 되었고 이것은 공론장의 한계로 인식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들은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시민미디어로 나타났다. 시민미디어는 시민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이 체계의 공격 없이 여론을 형성해 가는 자율적인 공간, 시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미디어를 운영하거나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론장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미디어는 초기엔 주로 소유권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공간의 확대 등은 시민이 직접 미디어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시민미디어의 개념도 시민참여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김은규(2002)는 시민미디어의 범주와 유형을 시민이 직접 미디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수준의 협의적 개념과, 내용 및 제작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 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직접참여가 가능한 광의적 개념의 시민미디어에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4) 방송법 제69조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림1> 시민미디어의 범주 및 유형

출처: “한국적 ‘시민 미디어(civic media)’의 유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규, 2002, P.17

한국에서 시민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국민주 방송 운동으로 모아졌다가 1차적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2001년 9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사(Sky Life)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의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위탁사업자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때 국민주 방송 설립운동 세력들이 주축이 된 (주)시민방송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2002년 9월 16일 ‘사람이 하는 방송’을 슬로건으로 삼고, ‘시민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을 표방하며 방송국을 개국하였고 RTV⁵⁾라

5) RTV의 5대 편성원칙

- 1) 참여·접근 : 성별, 나이, 국적, 인종, 민족, 문화, 지역, 종교, 성 정체성, 정치·사상,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에 따라 어떠한 차별과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 2) 다양성 : 프로그램의 기획·제작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 및 제작주체의 정치, 사회, 문화, 지역 등의 다양한 특성을 보장한다.
- 3) 자기표현·소통 :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생각과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프로그램 편성에 중점을 둔다.
- 4) 독립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등 기성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들 권

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또 다른 움직임은 소출력 라디오⁶⁾ 방송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영상 미디어센터와 미디어 운동 진영의 집요한 요구의 결과 방송위원회는 2004년 9월 소출력 라디오 시범방송 계획을 발표하였고, 서울과 지역의 8개 사업자를 시험방송 시범사업자로 결정하였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4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9년 8월 한곳을 제외한 7곳이 정규사업자로 전환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표2>공동체 라디오 현황 (2013.12월 기준)

순번	방송사명	채널명	홈페이지
1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www.radiogfm.net
2	(사)광주시민방송	광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www.icbn.or.kr
3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www.kkfm.co.kr
4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www.mapofm.net
5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분당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www.fmnara.com
6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www.scmfm.or.kr
7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www.yfm.co.kr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 현황

- 력의 방송참여는 제외한다.
- 5) 민주주의 · 자율성 : 미디어의 민주적 권리 확보는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국 운영 전반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편성원칙을 통해 RTV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다.
- <http://www.rtv.or.kr/xe/rule>
- 6) 소출력라디오 방송은 FM 주파수(88~108MHz)대역에서 1와트 수준의 작은 출력을 이용하여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비영리 방송이다.

최근에는 비영리 독립언론을 표방한 뉴스타파⁷⁾와 협동조합 모델을 채택한 국민TV⁸⁾가 등장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두 모델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언론을 만들 것을 약속하고 시민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뉴스타파에는 3만여명, 국민TV는 2만4천여명이 후원하고 있다.⁹⁾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공정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 탄생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한국에서의 시민미디어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7)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99% 시민을 위한 비영리, 비당파, 독립 언론기관입니다. 뉴스타파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지원 하에 MB 정부 시기 해직 언론인과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 설립됐습니다.

뉴스답지 않은 ‘가짜 뉴스’를 ‘타파’하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지향하는 ‘진짜 뉴스’를 위해 뭉쳤습니다. - 뉴스타파 <http://newstapa.org/news/introduce>

8)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설립취지문

우리는 자본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꿈꾸어 왔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고 거짓과 불의에 눈 감지 않는 공정한 방송, 상업적 목적에 의해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양질의 콘텐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언론,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해 왔습니다.

이런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미디어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미디어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추구보다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것입니다.

- 국민TV <http://kukmin.tv>

9) 후원자수는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각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

<표3> 국내 시민참여 미디어 유형 및 운영구조

유형	매체	운영주체	참여구조	주요사례	강제형태
소유권 액세스	팟캐스트 인터넷	조합원	후원	국민TV	없음
채널 액세스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액세스 채널	RTV	위성방송사업자 법적의무
	공동체 라디오	라디오 운영주체	직접 방송 제작 및 출현	(사)관악 공동체라디오	법적강제 (방송법69조)
	팟캐스트 인터넷	제작진	후원	뉴스타파	없음
프로그램 액세스	지상파 TV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	액세스프로그램	KBS열린채널	법적강제 (방송법69조)
	라디오 방송	지역라디오 방송	액세스프로그램	MBC 라디오시민세상	방송사 자율
	케이블 방송	케이블TV사업자	지역채널 액세스프로그램	열린TV시청자세상 6mm 우리들세상	법적의무 (방송법70조)
저널리즘 액세스	웹미디어	웹미디어운영자 단체, 주식회사	시민기자	오마이뉴스	운영자 의지
	지역신문	지역신문사 ¹⁰⁾	소유참여 기사제공	영남일보 '동네기자단' 외	운영자 의지

출처: “한국적 ‘시민 미디어(civic media)’의 유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규, 2002, P.253 재구성

이처럼 다양한 시민 미디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기존 지상파 TV는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이다(여론집중도 조사보고서, 2013). 지상파 TV 채널을 이용한 프로그램 액세스 형태는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시민 미디어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0) 지역신문의 시민저널리즘 적용사례는 김은규(2010)의 ‘지역신문 기자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연구’ 참고 p.130

기존의 대중 매체 공론장은 언론인이라는 전문 집단이 걸러낸 정보나 의견들을 뉴스나 토론 등의 양식으로 포장하여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때 구성된다. 이러한 대중 매체 언론들은 다수의 수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수 지향적인 것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 공론장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교류되는 장이 아니라 이미 다수가 그 존재를 인지하고 선호한다고 알려진 것들이 전달되는 장인 것이다(Benkler, 2006; Bruns, 2008; 한혜경, 2010; 재인용). 반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누군가 걸러낸 정보나 의견이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대중 매체 공론장의 문제를 보완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매스 미디어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도, 여론형성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구와 기술의 복잡성 그리고 소유권의 집중과 결합이 자본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미디어 소유자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디어에서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사항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된 것이다(박민·은수정, 2010).

현재 방송법에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¹¹⁾

11) 몇 차례의 방송법 개정 과정에 시청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21조, 제38조, 제91조등의 조항들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표4>는 현재 퍼블릭액세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법조항만을 기재하였다.

<표4> 현행 방송법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관련 조항

<p>방송법령 [법률 제12093호, 2013.8.13., 타법개정]</p>	<p>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4호, 2014.2.5., 일부개정]</p>
<p>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⑩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2011.7.14></p>	<p>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p>
<p>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2008.2.29.,2011.7.14., 2013.3.23></p>	<p>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4.9.17,2008.2.29, 2013.3.23>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p>

<p>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p> <p>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p>② 정부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2.1.17]</p>	<p>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법 제9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활용·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p>[본조신설 2012.7.17]</p>
--	--

출처: 한국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3.지역방송의 공익성

우리나라 방송법은 제5조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¹²⁾ 특히 제5조 2항과, 제6조 6항에는 방송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서술하며 지역방송의 준립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지역방송의 역할

지역방송은 방송을 통한 국민화합, 조화로운 국가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

12)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화 창달이라는 공공성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정보전달,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 지역민을 위한 토론의 장 제공 등의 임무를 가진다.

박기성(1997)은 한국 지역 방송의 성장을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첫째, 서울 중심의 중앙국 방송을 전국 규모로 보급하는 전국화 단계
- 둘째, 전국화와 더불어 지역의 상대성을 반영하여 지역방송 설립을 확대하는 채널 확대 단계
- 셋째, 언론 통폐합 조치 이후 다시 중앙 집중화 하는 통제 축소 단계
- 넷째, 지방 분권 하에 따른 지역 확대 보급의 지역 밀착 단계
- 다섯째,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 정보화 단계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현재 지방 방송의 성장 단계는 세계 정보화 단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방송은 90년대 후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매체의 개발로 인한 방송 환경 변화를 거치며 지역방송의 위기와 그것의 극복이라는 담론 속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원용진·황상현(2011)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방송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담론들이 대체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회복서사를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의 지역방송에 관한 연구가 지역방송의 위기와 활성화에 대한 대책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은(이진로·하봉준, 2010; 정상윤, 2009; 주정민, 2009; 구종상, 2008; 정상윤, 2008; 이진로, 2007; 최영목·이상훈, 2006; 정상윤, 2005; 주정민, 2004 등, 다수) 지역 방송의 활성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특히 2010년 미디어법 개정과 2011년 종합편성채널의 시작, 2012년 미디어렐법 통과, 스마트폰 보급과 스마트 TV등장 등은 지역방송이 위기를 넘어 이제 생

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¹³⁾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분석>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방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5%(매우필요하다 19.5%, 필요한 편이다 53.0%)가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주정민·강명현, 2012). 지역방송에 대한 필요성이 이렇게 높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방송이 자체편성하고 자체제작 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5> 지역방송 자체편성 현황 - 2011기준

방송국		자체편성 프로그램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비율
KBS	부산	9.69%	8.46%
	전국평균	9.01%	7.8%
MBC	부산	16.54%	10.69%
	전국평균	14.45%	8.00%
지역민 방	KNN	29.29%	21.46%
	전국평균	25.56%	15.46%

출처 :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 분석 pp.63~65 재구성

지역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에 비해 지역방송국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매체 시대 기존 방송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지만 앞 선 논의에서 확인 하였듯이 기존 방송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3) 이진로(2012)는 미디어렐 제도가 지역방송의 존립과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발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내용이 많으며 제도의 실행으로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존립 마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지역방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방송 시청자와 지역방송인, 지역방송 행정 전문가, 지역방송 연구자,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미디어렐의 운영상황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나 사회적 소통의 중심축 내지 보루로서 미디어 시스템 전반의 이념과 운영의 좌표를 제시하는 중핵미디어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윤석민 외, 2012).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은 자신과 다른 의견은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의견 교환을 가로막을 수 있다. 게다가 뉴미디어는 아직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매체 소유자와 비 소유자간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역방송은 보편적 서비스 매체로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적 수준을 교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주정민,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방송의 위기를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이진로, 2012; 주정민·한진만, 2011; 이근용, 2010; 김영수·이근용, 2010).

지역방송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로컬리즘(localism), 즉 지역성을 강화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지역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 즉 지역성은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지역성 개념의 변화

(1)지리적·공간적 지역성 개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란 어느 일정하게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동의식을 가지고 조직된 관계를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분담하고 수행하는 인간집단이자 삶의 터전이다.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동질적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고 그것을 우리는 지역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김세철, 1997).

초기 지역방송의 지역성은 이러한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행정적·공간적 지역으로 '방송권역'과 일치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성은 좁은 의미의 지역성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갖는 공통된 특성이나 기질, 특정 지리영역 안에서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만들어진 그들만의 독특한 적응방식이자 상호 밀접한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유지되어 오는 문화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안혜준, 1997).

하지만 앞서 지역방송의 발전 단계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대사회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이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구촌'시대가 열렸고 교통·커뮤니케이션·미디어 등의 발달은 기존의 공간 개념을 무너뜨렸다.

임영호(2002)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지리적·공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지역성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첫째, 갈등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익의 측면이 아니라 도구적 효율성 차원에서 공간을 이해하게 되어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사회현상의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을 빠뜨리고 주요 행위자를 방송사와 정책기관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생겨나 지역이 사회학적 행위자가 아닌 추상적인 단어로만 존재하게 된다. 셋째, 사회 현상의 공간적 분포를 마치 자연 현상처럼 주어진 그대로 당연시하는 무비판적인 자세로 이어져 지역 분포 자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된 실체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공유된 문화'나 '사회적 연대감'에 초점을 둔 사회적 공간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성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사회·문화적 지역성 개념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기존의 지리적 공간의 개념이나 방송권역이란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인 공간의 개념을 넘은 공유된 문화나 사회적 연대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지역성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은 미분화된 가상의 단일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곳이며 지역성 역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호작용들 속에서 변화하고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임영호, 2002; 조항제, 2006).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강명현·홍석민(2006)은 새로운 지역성의 개념정립을 위해 기존의 공간성과 사회적 공간 개념을 접목하여 지역 프로그램에서 구현될 수 있는 로컬리즘의 형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표6> 지역 프로그램의 로컬리즘 형태

구분	공간적 기준		
	지역내 제작	탈지역제작	
내용적기준	지역이해 반영	I	II
	지역이해 미반영	III	IV

출처: “로컬리즘과 지역방송:사회적 로컬리즘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강명현·홍석민, 2006, p.119

<유형 I>은 지역에서 제작되고 그 지역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뉴스나 토론프로그램 등 전통적인 지역 프로그램으로 로컬리즘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본다.

<유형 II>는 그 지역에서 제작되진 않았지만 지역민의 관심사나 이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산MBC <좌충우돌 두 남자의 만국유람기>를 들 수 있다.¹⁴⁾

14) 허서영(2012)은 지역방송이 지역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달팽이>,<부산재발견>,<좌충우돌 만국유람기> 세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좌충우돌 만국유람기>는 지역방송에서 제작하지만 촬영장소가 해외이다. 지리적·공간적으로 지역성을 접근 할 경우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성이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공유된 문화’나 ‘사회적 연대감’에 초점을 두면 이 프로그램은 지역성이 매우 강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허서영은 <좌충우돌

<유형Ⅲ>은 지역 내에서 제작되지만 지역민의 관심사나 이해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먼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방 공동제작 프로그램인 <세상발견 유레카>같은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Ⅳ>는 로컬리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그 지역에서 제작되지도 않고 지역민의 이해와도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지역방송의 지역성이 주로 <유형Ⅰ>과 <유형Ⅲ>의 범주에서 구현되는 것이라 생각해 왔다면, 사회적·공간적 지역성의 개념을 통해 <유형Ⅱ>의 형태까지 지역성이 구현되는 형태로 확장 할 수 있다고 본다.

3)지역방송의 새로운 역할 : 지역의 공론장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지역성의 개념은 ‘우리’를 이루며 살고 있는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 차이에 의한 개념으로 출발하였지만, 교통의 발달로 시공간이 압축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동시적인 두 장소의 동시화가 가능해지면서 고정된 의미로 사용되던 장소 개념이 상대적 의미의 공간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미디어의 발달은 공간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지역성의 입체화를 가져왔다. 이는 지역이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 아닌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화함으로써 지역방송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적 참여에 기여하는 지역의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조항제, 2006). 그동안 지역방송은 민주적 공론장 형성보다는 자신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정 이해관계를 대

두 남자의 만국유람기>의 출연자가 언어와 캐릭터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산사투리를 사용하는 두 남자, 두 남자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로 무뚝뚝함과 강한 정신, 바다에 거부감이 없는 등 이러한 기질이 여행을 통해 시청자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지역민들에게 큰 공감을 주고 있다. <좌충우돌 두남자의 만국유람기>는 지역방송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청률과 해외에 수출판로까지 열었다. 이것은 지역의 기질을 극대화하는 캐릭터로 지역성을 구현하면서 지역방송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 허서영(2012), ‘지역방송 프로그램에서 재발견한 지역성:부산·울산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변해야 한다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조되면서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에 소홀했다. 하지만 지역은 단순히 규범적·당위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갈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스스로 조정하고 통치하는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지역방송은 공적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한혜경, 2013).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지역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지향을 형성하게 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증진되기 때문에 지역 방송은 지역주민들을 참여민주주의의 주체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양혜승, 2014).

앞서 언급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서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지역방송의 필요성을 물었을 때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정보 제공(67.9%)’, ‘언론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감시(9.3%)’를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반면 지역방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은 ‘지역민이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50.9%)’, ‘지역의 의제설정 등 여론을 선도하지 못하기 때문(20.0%)’ 이라고 답하였다.

이것은 지역민들은 지역방송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지역사회를 감시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공론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 논의된 것처럼 지역방송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 내외적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역방송국의 열악한 재정 환경은 지역방송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지역방송의 어려움은 지역성 구현을 위한 소재로 주취기관의 홍보수단이 되는 ‘안전한’ 방송 소재들(지역의 축제나 먹거리, 지역의 명소 소개 등)을 선택 하게 한다. 이런 현실은 지방을 다양하고 다층적인 지역민들의 이해가 공존하

는 생활세계가 아닌, 정형화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문제를 지닌다. 특히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그램에서 지역성은 촌스러움, 향수, 옛것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지역민들은 외부인의 시선에 의해 타자화 되고 소외되며 지역성은 도시인의 수요에 따라 상품화 된다(한선 외, 2012).

지역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지역민이 느끼는 지역의 문제, 지역민의 삶, 환경·역사·문화에 관한 이야기 등 프로그램 제작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진다.

이것이 본 연구자가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다양한 유형의 공론장 형성이 가능 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기존의 공론장 개념은 <표7>과 같이 생활세계에서 진행되는 공적이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론장 개념은 지나치게 공적이고 제도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사적이고 감정적 영역이 배제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는 공론장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다.

<표7> 사회의 영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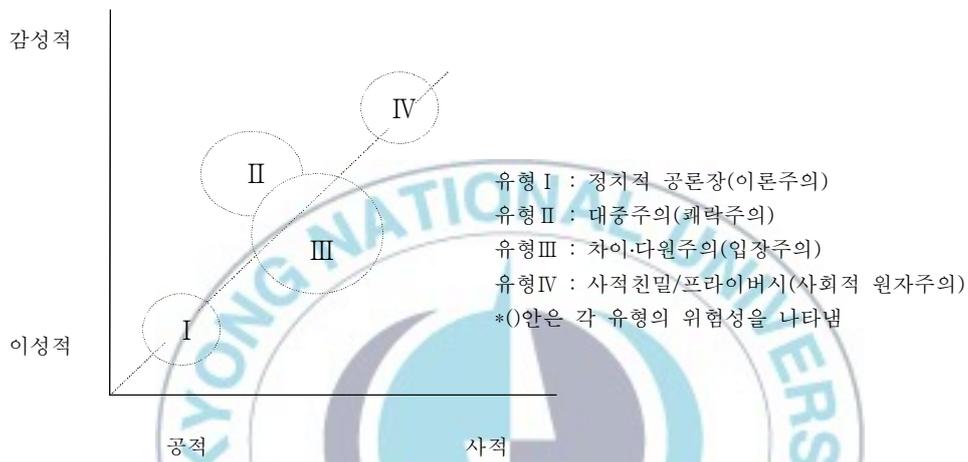
	공적	사적
체계	국가	경제
생활세계	공론장	사적·친밀의 영역

*출처:“공론장-미디어 관계의 유형화”, 조항제·박홍원(2010), 『한국언론정보학보』 p.8

리빙스톤(Livingston), 2005b, p.127 ;조항제·박홍원,2010 재인용

조항제·박홍원(2010)은 공론장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론장의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표7>과 같이 구분되는 사회의 영역들을 국가와 공론장을 긴밀히 연계시키고, 경제에서 소비의 효용을 중시하며,

사적·친밀의 영역을 더 세분화 하고 각 유형 사이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영역 교차가 쉬운 형태로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감안하여 정치사회적 범주는 기존의 ‘공/사적’으로, 문화적·인식적 범주는 ‘이성적/감정적’으로 설정하고 이 두 기준을 사용해 기존의 공론장을 <그림2>와 같이 구분 하였다.



<그림2>공론장의 유형화

출처: “공론장-미디어 관계의 유형화”, 조항제·박홍원(2010), 『한국언론정보학보』, p.13 p.21

<유형 I>은 ‘공적-이성적’인 곳이 만나는 곳으로 다양한 정보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교양적 시민을 양성하고 이들의 의견이 직접 표현되는 곳으로 공영방송이 주로 이 임무를 띤다.

<유형 II>는 ‘공적-감성적’이 조합된 것으로 흔히 저급한 신문, 토크쇼나 리얼리티쇼 같은 대중장르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¹⁵⁾

<유형 III>은 ‘사적-이성’의 조합으로 이전 정치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사적 영역을 비롯해 다양한 차이와 적대가 가지는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정

15) Dannagal G. Young and Russell M.Tisinger(2006)는 미국의 심야토크쇼나 버라이어티 쇼를 즐겨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정치적인 관심이 높고 실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기존 뉴스보다 정치적인 담론 형성이나 시청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치의 영역과 범위를 넓힌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로써 제도적 정치공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성이나 환경, 종족, 문화 등의 미시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점은 공동선을 강조하는 이전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화 시민이 바탕이 되는 ‘합의의 정치’의 유효성이 사라지고, 급진적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차이(들)의 정치’가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론장은 토론과 합의가 아닌 다양화된 공론장들 사이의 중재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의를 갖게 되었다.

<유형Ⅳ>는 ‘사적-감정’이 조합된 유형으로 공론장 또는 공적 정치 이전의 장, 최초의 잠재력을 가지는 곳이다. 이 유형은 개인의 양심을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기초로 가족과 친구 사이의 친밀한 사적·정치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유형Ⅰ>과 <유형Ⅲ>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기존의 공론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유형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이고 감성적 영역도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상의 지역성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성은 지역적·공간적 개념을 넘어 사회·문화적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공론장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지역성이 구현되는 유형 분석을 통해 지역 공론장 형성 가능성을 확인 할 것이다.

4.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대중매체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청자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문제에 대한 생각을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개인들과 집단들에게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영상 형태로 표현하여 공중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구현한다.

둘째, 텔레비전 제작과정의 신비화를 깨뜨리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셋째, 공적 담론을 장려하고 다양성에 대한 인지를 도모한다.

넷째, 개인들과 집단들이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상호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작 센터를 구축한다.

다섯째, 영상물 및 영상기술을 사용하여 사회변화를 추구한다.

즉, 주류에 의해 배제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Rinder, 1999; 하종원, 2001; 재인용)

우리나라 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었고, 퍼블릭액세스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2001년 5월 KBS <열린채널>을 통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시행 초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꾸준한 논의 속에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지역방송, 케이블TV 등으로 확장되는 성과가 있었다. 초기 지역방송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 하였다. 하지만 전국적 사안보다 지역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공감대가 높을 것이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정상윤, 2000), 지역 방송국들은 자체적으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방영하였다.

하지만 2007년 이후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방송사는 2010년 67개

사에서 2011년 41개사로 줄었으며, 제작 지원 기간도 2009년 50주에서 2010년 45주로 줄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35주 정도로 줄어든 실정이다.¹⁶⁾

현재 지역방송국에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곳은 <표 8>과 같다.

<표8>지역방송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편성 현황과 기획의도¹⁷⁾

방송국	지역	프로그램명	방영일	기획의도
MBC	대구	열린 TV 희망 세상	매주 토요일 AM. 9:20~9:40	방송법에 의거한 지역시청자들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시청자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핵심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
	광주	시청자가 만드는 TV	매월 첫째주 토요일 AM. 7:45~	내가 만든 영상이 TV에 나온다! 시청자가 직접 만든 영상을 소개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직접 만든 영상을 보내면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는 영상 만들기의 'A to Z' 시청자가 만드는 TV가 영상 만들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워 드립니다.
	전주	열려라 TV	매월 첫째주 일요일 AM. 8:25~9:15	시청자의 눈으로 세상풍경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경남	보물	매월	시청자 주권시대를 맞아 MBC경남은 시청자

16)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언론개혁 시민연대 - 2012년 10월 5일 논평

17) 본 표의 내용은 지역방송국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되었다.

		상 자 ¹⁸⁾	일요일 AM. 8:10~8:40	가 전파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늘어나는 시청자의 영상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지역 민 방	광주 KBC	미디어 어세 상! 시청 자와 通하 는 TV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PM. 12:00~ 13:00	방송법에 따라 방송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시청자 혹은 시민, 시청자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등이 직접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소재들이나 실험적인 형식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이는 시청자 주권을 획기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부산 KNN	시청 자 TV	매월 첫째주 금요일 PM. 13:30~ 14:00	가. 소수자 보호 :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이 불리한 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소수자 보호에 이바지 하여야 함 나. 지역성 구현 : 지역관심사, 지역 자치 등 지역성 구현을 통해 조화로운 국가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함 다. 방송의 다양성 실현 : 환경, 청소년, 여성, 어린이,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의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 하여야 함
K B S	부산	열린 채널 부산	매월 첫째주 금요일 PM. 13:00~ 13:30	KBS본사 <열린채널>의 소재와 시청자 참여의 폭을 지역으로 확대 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지역 시청자의 시각으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지역의 문제와 함께 사회 저변의 문제, 노동자, 농민, 인권, 환경, 장애인, 여성, 소외 계층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청자의 눈과 귀로 직접 듣고 본 내용을 KBS를 비롯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시청자 스스로가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조사결과 KBS 지역방송국 중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곳은 부산이 유일했다. 담당 PD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진행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담당 PD의 의지가 높았기 때문 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현장 실무자의 의지도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방영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MBC의 경우 가장 많은 지역에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만 목포, 춘천, 부산 지역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2012년을 즈음하여 폐지 되었고, 지역민방의 전주 JTV도 2013년 폐지되었다.¹⁹⁾ 이처럼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아닌 축소되고 있는 현실은 방송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시간이 갈수록 별다른 여론형성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체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 상황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방송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지역 방송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조성호(2006)는 지역의 보도 프로그램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18) 경남지역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타 지역과는 다른 형태로 제작되고 있었다. 아래 내용은 홈페이지에 특이사항으로 정리된 내용이다.

- * 보물상자의 PC, 리포터, 진행자는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내에서 구성한다.
- * 본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은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과 시청자미디어 센터가 결정한다.
- * 전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서울, 목포, 전주, 춘천, 울산, 대구, 김해, 제주 등)와 연계해서 시청자 프로그램을 교환·방송한다.
- * 매주 제작된 보물상자는 시민방송(R-TV)과 연계함으로써 케이블 2회, 위성방송 2회 전국으로 주4회 재방송된다.

19) 기간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2005~2007년까지 활성화 되고 기틀을 잡아가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방영을 중단한 곳이 많았다. 특히 부산MBC는 프로그램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폐지 하였는데, 부산KBS가 8년 동안 진행하면서 수급의 문제로 8번 결방이 된 것을 보면 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이유들도 존재 하리라 생각된다. 만일 프로그램의 수급이 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보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찾고 시민들에게 채널을 열어주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 구현의 측면에서 더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된다.

지역성이 잘 담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다양한 형태의 보도 장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연식(2009)도 지역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두 연구 모두 지역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지 않다.

한선 외(2012)은 지역 프로그램이 지역방송 소재가 일상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탁진영·서예란(2011)의 지역방송이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성이 어떻게 구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단순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제작과정 전체를 통해 지역사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유력한 방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방송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본 연구가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4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방송이 추구해야 하는 공익 중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한 공론장 형성이 중요하다 보고 지역방송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 주목하였다.

지역방송과 관련한 기간의 논의들은 지역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현 방식 등에 관해 깊이 있게 논의되기 보다는 기존의 지역성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성 구현을 당위명제로 하고 이것을 잘 구현 할 수 있는 방법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차재영·유지영(2010)은 학계에서 지역성 개념이 주로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나 정책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 지역성 개념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편성과 제작 광고와 마케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등의 당위적 명제로 지역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지역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 할 것이다.

기존의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의 참여는 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시청자는 대부분 프로그램의 소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시청자 참여를 통한 공론장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보다 주체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박은희,1996).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높은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자신의 의견을 직접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작자의 관심에 따른 다양한 내용이 방송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는 시민 미디어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참여를 통한 공론장 형성이라는 방송 공익실현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공론장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공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이고 감성적인 영역도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여 공론장의 유형을 정치적 공론장에 더해 대중주의, 차이·다원주의, 사적친밀/프라이버시로 확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영역은 지역성과 다양성을 통해 형성될 것이라 보고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형태를 분석을 통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지역의 공론장 형성에 유효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열린채널 부산》은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연구문제2. 《열린채널 부산》은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연구문제3. 《열린채널 부산》은 지역의 공론장 형성에 유효한가?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지역방송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지역성 구현과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부산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인 《열린채널 부산》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문헌연구와 프로그램 내용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부산KBS 《열린채널 부산》이다. KBS 지역국은 ‘지역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정책의 핵심으로 놓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정상윤, 2003)는 점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KBS 지역국 중 유일하게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열린채널 부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열린채널 부산》은 2007년 5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방영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7월부터 2013년까지 방영된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간 중 프로그램 수급상의 문제로 8번이 결방되었고, 제1회 부산 실버 영상제 수상작으로 방송을 대체한 것이 1번 있어 총 71회, 131편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그 중 다시보기 서비스가 되지 않는 16편을 제외한 115편의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 지역성 구현 분석 방법

앞서 지역방송은 방송을 통한 국민화합, 조화로운 국가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 아래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공익성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정보전달,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 지역민을 위한 토론의 장 제공 등의 임무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방송에서의 지역성이 지리적·공간적 개념을 넘어 사회·문화적 공간을 통한 연대감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주정민·한진만(2011)은 지역성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콘텐츠를 통해 지역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고 지역방송이 구현해야 할 지역

성을 첫째, 지역민의 이해와 관심 반영 및 지역의제 설정하는 것, 둘째, 지리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의 이슈를 지역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것, 셋째, 지역민과 밀착한 콘텐츠와 정보제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지역성 구현 유형을 기존의 지리적·공간적 지역성과 사회·문화적 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할 것이다.

3) 다양성 구현 분석방법

나폴리(2003)는 다양성을 소스의 다양성(source diversity), 내용의 다양성(content diversity), 노출의 다양성(exposure diversity) 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양성은 소스의 다양성→내용 다양성→노출 다양성이라는 논리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 소스의 다양성 증가는 내용의 다양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내용이 다양 할수록 채널을 선택하는 시청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도 나폴리가 제시하는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분석 할 것이다. 소스의 다양성은 제작자와 출연자 현황을 통해, 내용의 다양성은 앞서 논의된 지역성 구현 유형에 따라 어떤 주제가 어떤 형태로 구성 되는지를 통해, 노출의 다양성은 프로그램이 반영되는 편성시간의 변화와, 다시보기 서비스 방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출연자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사람으로 한정하였고, 대한노인회, 새마을회, 다양한 자활센터, 협회,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자, 동호회 회원 등은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다양한 시민단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고 시민단체로 분류하였다.

제작자는 프로그램 방송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TV

화면의 엔딩 크래딧에 올라가는 제작자를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제작자 조사를 위해 《열린채널 부산》 담당 PD의 도움을 받았다.

주제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유목으로 주제를 분류하였다.

<표9> 주제 분석 유목

주제	생활일반	봉사, 건강, 웰빙 등
	정치/경제/사회	지역의 공공정책 관련
	역사	역사관련
	문화/행사/축제	문화일반, 지역행사 소개 등
	환경/자연	환경문제 등
	소외계층	장애인/성소수자/다문화·이주노동자/청소년/여성/노인
	기타	기타

주제 분석 전 전공 대학원생 두 명과 연구자 총 세 명이 코딩의 일관성 및 분석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체 115편 중 35편을(30%) 활용하여 코딩을 실시하고 코더들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은 홀스티(Holst)의 공식²⁰⁾을 사용하였고 검증결과 신뢰도는 82.8%로 나타났다.

20) 홀스티(Holst) 공식은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을 가지고 명목적 자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코더들간 일치한 코딩수를 코더들이 각각 코딩한 전체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홀스티공식(Holst) = $2M/(N1+N2)$

제4장 연구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지역성과 다양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열린채널 부산》을 분석 하였다.

2007년 5월 5일 <리얼다큐, 메이킹 필름 나>를 첫 방송으로 시작된 《열린채널 부산》에는 다양한 부산의 이야기들과 지역 현안들이 담겨 있었다.

1. 《열린채널 부산》의 지역성

지역성에 대한 논의는 생활세계에 주목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 논의, 그리고 생활정치가 이루어지는 토대로서 일상의 문제와 접목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매일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갈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대의제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이 정치 주체로 회복되는 것을 지향한다. 자신의 문제를 외부 장치가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시민들, 국가나 거대 사회 구조의 불합리성을 고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소소한 일상에 대한 변화의지를 가진 이들을 정치주체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요코다 카쓰미, 2004; 이상봉, 2010; 한선 외, 2012; 재인용).

따라서 이들의 실천이 이뤄지는 일상과 지역이 중요한 공간으로 부상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성이 구현되는 형태를 기존의 지리적·공간적 지역성과 사회·문화적 지역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문제1. 《열린채널 부산》은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1) 지리적·공간적 지역성 : 지역 소개

분석 결과, 《열린채널 부산》에는 다양한 부산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유형은 부산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소개와 지역 명물을 소개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부산이라는 지리적·공간적 지역성이 구현되는 형태로 특별한 논쟁거리는 없지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여주고 있으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1) 지역 문화 소개

<가을, 책의 향기 속으로>, <그들의 노래를 들어줘>, <날라리 낙타>, <부산, 그리고 문화>, <서스테인러블 아트 프로젝트>, <숲에서 꿈꾸다>, <아마존의 꿈>, <예술바람>, <탈을 쓴 사람들> 등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 소개되고 있었다.

<탈을 쓴 사람들>은 전통문화인 수영야류와 함께 수영야류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수영사적 공원에서 진행되는 수영야류의 기원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수영야류는 250여년 전부터 전승되어 오는 탈춤으로 정월대보름에 진행된 한해 농사의 풍작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탈놀음으로 주요 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수영 팔도 시장의 쇠락처럼 수영야류에 대한 관심도 점차 시들어져 가고 있다. 시장 상인들이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 장사 하는 틈틈이 연습을 하며 어렵게 공연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를 누가 또 어떻게 이어 가겠느냐...한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 문화라는 것을 빼고 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유형의 문화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없어지지 않고 보존이 되지만 무형의 문화라는 것은 하는 사람이 봐주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는 사람이 예능인이 사라지면 겨우 발굴해낸 것이 버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라도, 아무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이것을 전승시켜 나가야 된다. 항상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있어요”

-수영고적 민속예술 보존협회 이상렬 인터뷰 中

잊혀져가는 지역 문화를 지키고, 관심을 갖자는 마음이 잘 느껴졌다.

문화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리마켓, 곳곳에서 진행되는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부산의 문화행사를 소개하고 있는 <부산, 그리고 문화>편에서는 단순한 문화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부산시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예술바람>편에는 ‘또따또가’라는 공간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을, 책의 향기 속으로>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지역의 문화 육성에 이바지 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2)지역 명물 소개

<구포시장 도심에서 꽃피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림>, <동해남부선 도심구간 20.8Km 사라질 기찻길을 따라서>, <막걸리 한 사발>, <바람>, <산복도로에서>, <송전천의 최상류>, <시간이 멈춰 버린 마을 매축지>,

<이바구길 탐방>, <아미동 비석마을>, <오래된 옷장> 등은 지역 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림>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부산진시장, 부전시장, 남천해변시장 등 부산시민들에게 친숙한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과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또한 대형 유통마트에 맞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과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부산 상인연합회를 찾아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짚고 있다.

대형유통 마트와 비교하여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점을 부각 시켜 지역 재래시장의 활로를 모색 하고 있다.

<막걸리 한 사발>은 부산사람들에게 친숙한 산성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이를 매개로 하여 막걸리가 가지는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막걸리의 다양한 변신을 소개한다.

<오래된 옷장>에서는 남포동 국제시장의 구제골목을 소재로 하여 구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같은 유형은 지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친숙한 소재를 선택하여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사례들이라 볼 수 있다.

2)사회·문화적 지역성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통해 지역은 단순한 공간적 개념을 넘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성은 기존의 지리적·공간적 개념을 넘어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지역방송은 이러한 확장된 지역성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정치적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열린채널 부산》에서는 사회·문화적 공간의 지역성이 잘 구현되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크게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는 유형, 지역민의 삶을 이야기 하는 유형, 지역 공공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

(1)지역 시민사회 활동 소개

<꿈을 향한 등불>, <나의 co2투쟁기-어린이 자연학교>, <테프자이언트>, <도시의 텃밭 이야기>, <시민영상 헐리우드를 꿈꾸다>, <아름다운 황혼>, <작은 학교 큰 배움터>, <팟캐스트가 세상을 변화 시킨다>, <학대받는 노인>, <행복마을 초장동>, <희망을 주는 집> 등은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도시의 텃밭 이야기>에서는 산복도로 마을 만들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량동 산복도로의 희망농장, 부산 동명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텃밭 가꾸기, 부산 귀농학교에서 진행하는 생태도시 농부학교의 프로그램 소개와 범어사 신동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있는 부산환경연합 회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텃밭을 가꾸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환경단체 활동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나의 CO2 투쟁기>는 부산 녹색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자연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통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짚고 있다. 에너지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태양열을 이용해 달걀 후라이를 해먹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환경을 지키는 것은 활동가들만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특히 재미있었던 건 태양열 에너지로 계란 후란이 해 먹었던 거... 방에서 나올 때 방에 불 끄고 나오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고 냉장고는 자주 열고 닫지 않고 그리고... 짧은 거리는 되도록 걸어 다니고...
-자연학교 참가자 어린이 인터뷰
中

<학대받는 노인>에서는 노인학대의 실태를 알리고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노인 학대 인식의 날 행사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공경 교육활동,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하여 직접 노인의 몸이 되어보는 노인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대에 노인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교육듣기 전에는 그냥 보통 노인들이 다니시는 모습이 대중 '어 그냥 저렇게 걷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듣고 체험도 해보니까 진짜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노인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인터뷰 中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방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상윤, 2003; 탁진영 외, 2011). 이러한 유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들이 공중과 방송을 통해 소개 된다는 점에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지역민의 삶에 접근

이러한 유형은 사적인 의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형태로 지역민

의 일상과 지역 소외계층의 이야기가 따뜻한 시각으로 담겨있다.

①지역민의 일상

<고목나무의 사랑>, <내가 원하는 세상>, <늦은 나이란 없다>,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 <쓰다>, <우리 형>, <울 엄마 이빠라>, <My way> 등에서는 이웃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울 엄마 이빠라>에서는 18년째 뇌졸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보살피는 친구의 일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엄마에게 매일 아침 과일을 갈아드리고, 기억력이 좋지 않은 엄마를 위해 매일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드리고, 엄마의 대소변과 신경질 까지 모두 받아내고 있다. 왜 노인병원에 보내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도 병원을 생각해 보았지만 가족이 돌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고 답을 하지만 엄마를 모시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노인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접 언급 하지 않지만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노인 환자를 돌보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화면이 조금 흔들리고 영상미는 떨어지지만 촬영 중 주인공과 친구가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는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고목나무의 사랑>은 평범한 아버지의 일상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촬영자는 버스터미널에서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일상을 촬영하고 가족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을 보니까 평일인데 이렇게 많으면 주말에는 더 많을 것이고, 여름에 밖에 계시면 엄청 더우실 것이고, 겨울에는 또 엄청 추우실 것인데 기본이 착잡하다, 고등학생이다 보니 학업스트레스가 꽤 있는 편인데 집에 오면 의도치 않게 아버지에게 짜증내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동생과의 인터뷰 中

아버지의 삶,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해준다.

<우리형>에서는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통해 청년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형이 실직자가 되기 전 했던 다양한 일들을 두 사람이 자연스러운 대화로 풀어내고 있다.

- 뭐 찾고 있는데?

*일자리

-형 전에 직장 많이 다녔잖아, 뭐해봤는데?

*서울에서 엑스트라도 해보고... 연정훈이랑 밥도 먹었다. 부산에서 고생한다고 밥사주대

-엑스트라 계속하지 왜 내려왔는데?

*엑스트라 하니까 돈이 바로바로 안 나오대 한달 반 있다 나오데 돈 없는데 바로바로 안주대...

*아... 바로바로 안주나? 그래서 내려왔나? 그래서 어디 갔었노?

-그래서 조선소에 들어갔지 형 친구랑 조선소 갔었다 아니까 한 일년 정도 다니다가...일이 위험하대 그래서 자동차 회사 갔다 아니까...

*아 그게 전에 회사재~ 잘 다니다가 왜 나왔는데 팔린 거?

왜 팔리기는 회사가 망해서 나왔지... 차가 안 팔린다 아니까

서울에서 엑스트라를 했었지만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결국 그만두고, 조선소에 취직을 했다가 일이 너무 위험해서 자동차 판매 회사로 자

리를 옮겼는데 그 회사가 망해 결국 실직자가 된 형의 사연은 비단 형만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사연인 것 같다.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형의 모습은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다는 요즘 세대들의 아픔을 반영하고 있다.

형과 동생이라는 편한 사이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어 조금 가벼운 느낌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형의 일상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에 큰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②지역의 소외계층

<나도 일하고 싶다><내 아들 준수>, <늦은 나이란 없다>,<몽계구름 엄마의 노래>, <미운 오리 새끼>, <반짝 반짝 빛나는 그대>, <살아있으니>, <어둠속의 빛>, <외길 50년>, <우리도 결혼 합니다>, <장애인에게 명절은 지옥>, <40년 만에>, <99까지88하계> 등에서는 지역의 소외 계층 이야기가 우리 이웃의 입장에서 소개되고 있다.

<99까지 88하계>와 <반짝 반짝 빛나는 그대>에서는 에어로빅, 서예, 영상, 컴퓨터 등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노인들의 열정적인 삶을 보여 주고 있다. <아름다운 황혼>과 <나도 일하고 싶다>에서는 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길50년>에서는 50여 년간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활동한 김만율씨를 통해 노인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 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들의 여러 삶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고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의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40년 만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장애인이 난생 처음 야구장을 찾

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도 결혼 합니다>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이 결혼을 하기 까지 겪는 어려움을 통해 매우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그들에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내 아들 준수>와 <몽계구름 엄마의 노래>에서는 장애인 아이를 둔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통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서로를 위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가족임을, <정신 장애인의 꿈>에서는 정신 장애인도 꾸준히 약만 복용하면 일반인과 같은 생활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의 편견이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행복마을 초장동>에서는 초장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문화캠프인 ‘오감캠프’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한마음 행복센터를 통해 한국에서의 삶을 꾸려가는 이주여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고3우리들의 자화상>, <미운 오리새끼 날개를 펴다> 등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방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답하는 고3이 되는 학생들의 이야기와 학교 공부가 아닌 연극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을 통해 현 교육제도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이러한 유형들은 우리 이웃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지만 노부모를 모시며 어려움을 겪는 딸의 이야기, 장애인이 겪는 개인적인 불편함, 직장을 구하는 우리 형의 이야기는 비단 그 사람의 사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러한 개인의 사적 의제들은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공적 의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앞서 밝힌 사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의 공론장 형성이 가능한 형태라 볼 수 있다.

(3)지역의 공공정책 감시와 지역의제 제시

《열린채널 부산》 전통적인 로컬리즘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지역의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이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은 지역의 공공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 지역 공공 정책 고발, 새로운 지역 공공 정책을 제안하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①지역 공공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녹색 자전거>, <버스 정류장 이러면 어떨까>, <보수동 책방 골목의 재도약>, <부산시내 걸어가기>, <사라진 역사>, <사람이 먼저다>, <어둠속의 빛>, <연안 재해를 막아주는 방풍림>, <우리 아이 첫 보육기관 고르기>, <해안지역의 축복>, <해운대 노란 조형물> 등에서는 지역 공공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아이 첫 보육기관 고르기>에서는 출산 후 4년 만에 다시 직장을 갖게 된 주부가 아이의 보육기관을 선택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엄마의 입장에서 보육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산시의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의 재도약>에서는 온라인 서점의 여파로 지역의 작은 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보수동 책방골목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13억이나 들여 재정비사업을 진행했지만 소비자와 상인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상인들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구청에서 18억을 들여 건립한 책방골목 문화관을 소개하고

책방골목이 보수동 상인들과 시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하고 있다.

<연안재해를 막아주는 방풍림>과 <해안지역의 축복>에서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부산지역 난개발이 가져오는 환경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버스정류장 이러면 어떨까>와 <사람이 먼저다>에서는 부산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버스 정류장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 목소리(플라스틱 유리로 시야 확보, 버스 도착 시간 전자등 설치, 표지판 버스 반대 방향 설치 등)는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제작자의 건의 때문인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실제 시민들이 목소리를 전달하고 생활 속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데 좋은 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②지역 공공 정책 비판

<갈맷길 걸어보셨나요?>, <난쟁이가 사는 마을>, <다시 태어나는 영도다리>, <매축지 교향곡>, <부산에서 자출족으로 살아남기>, <비보호 좌회전>, <연륙교 개통 후 가덕도>, <우리 학교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해운대는 지금>, <회색도시 녹색의 꿈을 입다> 등은 지역의 공공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갈맷길 걸어보셨나요?>는 갈맷길을 구간별로 소개 하고,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길도 성급하게 갈맷길에 포함한 행정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난쟁이가 사는 마을>은 주례, 범일동, 감천동, 보수동등 부산시의 지역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고 <해운대는 지

금>에서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연륙교 개통 후 가덕도> 편에서는 강서구 가덕도에 설치된 연륙교 개통 이후 주민들이 겪는 예기치 못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줄지어 6~7대 차량이 같이 지나 가니까네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서 있다고예...조용히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공기도 좋고 오염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자꾸 오염이 되는 거라.

- 장항 마을 주민 인터뷰 中

객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산이고 어디고 나물이나 해먹는 것은 다 캐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바다에 바닷 풀이며 미역, 고동을 가져갈 수 있는 대로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못 묵는 거야.

- 대항마을 주민 인터뷰 中

...남는 거는 쓰레기하고 오물 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 동네 차들이 한번씩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아파도 차가 막혀서 못나가는 기라...

-동선마을 어민회장 인터뷰 中

③지역 공공정책 제안

<동물원 가고 싶어요>, <온천천 자연형 도심 하천>, <피프 윗아웃 남포동>에서는 지역의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동물원 가고 싶어요>에서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의 입장,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 소규모로 동물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전 동물원 직원, 동물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어린이 등 다양한 부산 시민들이 등장하여 각자 부산에 왜 동물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부산에 동물원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은 엄마들의 똑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동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동물원이 있으면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부산시민 인터뷰 中

제가 어린이집 한지가 딱 18년 되는데, 한 10년 전에는 1년에 서너 번은 (동물원에) 갔어요 부산시에 있을 때는 갔는데 그 이후로는 뭐 교통이라든가 모든 게 불편하고 멀면 애들이 차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직접 동물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산시에 그런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 인터뷰 中

이와 같은 유형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정치적 공론장 형성에 유효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2. 《열린채널 부산》의 다양성

다양성은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소외계층이나 소수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열린채널 부산》은 “우리지역의 문제와 함께 사회 저변의 문제, 노동자, 농민, 인권, 환경, 장애인, 여성, 소외 계층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청자의 눈과 귀로 직접 듣고 본 내용을 KBS를 비롯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시청자 스스로가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21) 현행 방송법에서도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다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열린채널 부산》에서 다양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제작자·출연자, 내용, 노출의 세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연구문제2. 《열린채널 부산》은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1) 제작자·출연자의 다양성

(1) 제작자의 다양성

제작자의 현황은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직업란을 참고 하였으며, 참가 신청서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엔딩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주부, 자영업자, 프리랜서, 회사원,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단체 등이 참여 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소속을 기재하지 않아 미기재로 분류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비율은 <표10>과 같다.

<표10> 프로그램 제작자 현황

미기재	주부	회사원	자영업	프리랜서	시민단체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가	시민제작단	합계
51 (44.3%)	3 (2.6%)	5 (4.3%)	1 (0.9%)	1 (0.9%)	1 (0.9%)	1 (0.9%)	31 (27.0%)	10 (8.7%)	11 (9.6%)	115 (100%)

직업란이 미기재 된 작품이 51편(44.3%)로 가장 높았다. 이들 제작자는 30,40 대가 대부분 이었고 성별을 알 수 없는 한편을 제외하면 남성이 27명 여성이 23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작자의 이름이나 내용을 통해 추론해 보았을 때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라 판단 할 수 있었다.

방송 횟수가 유동적이라(1회당 1~3편 사이)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2007년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개최한 지역 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집중토론회의 자료집에 정리된 이경균 담당 PD의 자료를 보면 “응모자들이 대부분 영상관련 학과 대학생, 영상제작관련 종사자 및 전문 VJ가 대부분이고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의 응모가 저조한 편” 이라고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²²⁾ 하지만 2013년 까지 전체 참가자 현황을 봤을 때 일반 시민이 62명(53.9%)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²³⁾.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장비의 보급, 편집기술의 보급 등으로 시민들이 영상을 접하고 제작하기 쉬워졌고, 미디어 센터를 통한 다양한 교육 등으로 미디어 저변이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보여진다.²⁴⁾ 미디어 센터의 후원을 받은 시민 제작단 작품이 11편(9.6%)이라는 것도 미디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영상 전문가들의 비중이 낮아지고 일반 시민들과 시민제작단의 제작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간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학생의 비율이 31편(27%)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 관련 학과 학생들의 작품이라는 것은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한계이자 새로운 가능성이라 생각한다. 관련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의 예비 방송인으로 활동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취지인 방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의 참

22) 지역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집중토론회 ‘부산경남지역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운영모델 발전 방안’ 자료집 발췌

23) 일반 시민은 미기제로 분류된 사람과 주부, 회사원, 자영업, 프리랜서를 합친 숫자이다.

24) 2012년 시청자 미디어 센터 부산·광주 백서에 나와 있는 전체 이용자 통계를 보면 2012년 26만명, 2011년 22만명, 2010년 18만명으로 이용자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지역에서 진행된 교육·제작 지원은 2010년 32건, 2011년 135건, 2012년 246건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도 장애인, 노인, 이주민을 넘어 지역공동체 미디어 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를 막는 다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송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찾아가 제작 지원을 하는 형태의 활동을 병행 한다면 프로그램을 풍부화 시키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단체와 고등학생의 작품이 각각 1편(0.9%)으로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 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30대가 전체의 7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 대학생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10대의 작품은 1편(0.9%) 뿐이었다. 청소년과 노년층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표11> 연령별 참여 현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 (0.9%)	51 (44.3%)	33 (28.7%)	19 (16.5%)	6 (5.2%)	5 (4.3%)	115 (100%)

참여자의 성별은 시민 제작단이 함께 작품을 제작한 경우에도 신청자는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 정확하게 파악 하긴 힘들지만 남성이 60.9% , 여성이 38.3%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성별 참여 현황

남	여	미상	합계
70 (60.9%)	44 (38.3%)	1 (0.8%)	115 (100%)

(2) 출연자의 다양성

전체 프로그램 중 인터뷰를 진행한 출연자는 <표13>와 같다.

<표13> 출연자 현황

공직자	시민 단체	기업인	소 상공인	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	스포츠	문화인	합계
47 (4.8%)	141 (14.4%)	14 (1.4%)	78 (8.0%)	56 (5.7%)	560 (57.3%)	2 (0.2%)	79 (8.1%)	977 (100%)

방송에 출연한 사람은 일반시민이 5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단체 141명, 문화인이 79명, 소상공인이 78명, 학자 및 전문가가 56명, 공직자 47명, 기업인 14명 스포츠인 2명 순이었다.

일반 시민은 특별한 소개 없이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로 주로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버스정류장 이르면 어떨까>에서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가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연탄은행 봉사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부산모임, 꿈 마을 사물놀이패, 부산발달장애 부모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전교조, 부산녹색연합 등 시민들의 자발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자발적 시민과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 문화인들의 출연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아마존의 꿈>에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아트마켓 존’을 연 예술인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을 그렸고, <그들의 노래를 들어줘>에서는 지역의

인디밴드들을 소개하고 지역 인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전달되고 있다. <바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림>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보수동 책방 골목의 재도약>에서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부산시에서 진행한 보수동 책방골목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분야별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주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해안 지역의 축복, 바닷가 기후> 편에서는 관련학과의 교수가 해안지역 기후의 특징과 그것이 부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부산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연안재해를 막아주는 방풍림>에서는 일본의 전문가가 나와 연안지역의 방풍림이 중요한 이유와 일본에서 방풍림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것이 가져오는 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공직자는 47명이 출연하였는데 <녹색자전거>, <학대받는 노인>, <우리 학교 주변에는?>에서와 같이 부산시의 공공정책을 설명 하거나 <해운대 노란조형물>, <보수동책방골목>,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에서와 같이 문제점이 지적된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있었다.

주요 등장인물을 성별, 계층(연령, 장애) 별로 구분해 보았다.²⁵⁾

25) 주요인물이라 함은 주인공 급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거나 인물을 직접적인 소재로 삼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표14> 주요 등장인물 유형

여성	일반	병든 엄마를 모시는 딸/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2/ 아이의 보육시설을 고민하는 엄마/ 반성매매 활동가 / 주부 제작단	6편
	청소년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고등학생	1편
	장애인	시각장애인	1편
남성	일반	동네 빵집 사장님/청년 실업자/자전거 출근족 /마임 공연가/노숙인 지원가/산복도로 여행가 /공익요원/산악인/젊은 창업인/아버지2/사진작가	12편
	노인	일제시대 강제징용자/노인복지활동가	2편
	장애인	40년 만에 야구장을 찾은 장애인/ 자원봉사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있는 지체 장애인	2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고등학생 / 고3이 되는 학생들	2편
혼성	장애인	장애인 예비부부/시각장애인 음악단/장애인 야학생 /정신장애/청각장애 야구단원	5편
	노인	일하는 노인2/ 노년을 즐기는 노인2	4편
	기타	대학생 밴드/팻케스트 제작자/비정규직 교사 /다문화 가족	4편

다양성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다양한 직종, 다양한 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남성이 주인공인 경우는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 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성매매여성, 다문화 가족, 비정규직 교사 등 사회적 약자들이 다양하게 출현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내용의 다양성

다양성의 개념은 미디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하고 이것은 소수의 견이나 소외된 계층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한다(박소라, 2003). 나폴리는 내용의 다양성을 프로그램 유형(장르), 인구학적 특징, 시각-관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분석 대상 중 2편을 제외한 모든 편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르 구분은 무의미 하였고, 인구학적 특징은 앞서 출연자의 특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내용의 다양성은 앞서 지역성 구현 유형 분석을 토대로, 어떤 주제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전체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주제별 프로그램 분류

생활 일반 휴면	정치 경제 사회	역 사	문화 행사 축제	환경 자연	소외계층 28(24.3%)					기타	합 계
					장 애 인	다 문 화	청 소 년	여 성	노 인		
21 (18.3%)	28 (24.3%)	6 (5.2%)	21 (18.3%)	7 (6.1%)	15 (13.0%)	1 (0.9%)	5 (4.3%)	1 (0.9%)	6 (5.2%)	4 (3.5%)	115 (100%)

전체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지리적·공간적 지역성은 주로 문화·행사·축제 소개로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지역방송의 한계를 이야기 했던 <6시, 내고향>과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지만 한선 외(2012)의 지적처럼 지역성이 홍보 수단이나 상품화가 목적이 아닌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 지역에 접근하고 있어 타지인을 위한 지역의 정보 제공이

아닌,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민들의 삶은 소외계층과 생활일반·휴먼을 주제로 나타나고 있었고, <인간극장>같은 형태의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 주민의 소소한 일상을 포착하고 개인의 사적 의제들을 공적 의제로 전환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공적 의제는 정치·경제·사회 부분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었으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기존의 저널리즘과 같은 형태로 제작되고 있었다.

전체 115편중 <RUN>과 <혁명> 두 편을 제외한 모든 편들이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장르적 다양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는 <RUN>과 <혁명>은 각각 청소년들의 꿈과 어른들의 편견, 장애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RUN>은 꿈을 잃어버린 고등학생이 왜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찾아 과거로 돌아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은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를 보며 청소부가 되길 꿈꾸었으나 꿈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것이 좋다는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결국 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혁명>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대통령이 된 장애인이 ‘비장애인 차별법’을 제정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지정된 식당이 아닌 곳에서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지정된 화장실이 아니면 볼일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한 장애인의 꿈이었다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만 그들이 얼마나 차별 받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작 참여가 비교적 높았던 대학생들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보다 다양한 장르를 제작 한다면 풍요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노출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소스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하고 소비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권상희·홍종배, 2010).

《열린채널 부산》은 7년 동안 총 8번의 편성을 하였는데, 2007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의 편성 변화를 정리하면 <표16>과 같다.

<표16> 열린채널 부산 편성 변화

	방영 시기	요일	시간대
1	2007.5~2007.11	토요일	7:40~
2	2007.12~2008.3	일요일	7:10~
3	2008.4~2009.4	일요일	7:40~
4	2009.5~2009.7	토요일	13:00~
5	2009.10	토요일	11:30~
6	2009.11~2010.5	토요일	13:00~
7	2010.6~2010.12	목요일	16:10~
8	2011.7~현재	금요일	13:00~

지상파 방송은 보통 1년에 두 번 개편을 한다. 개편의 목표가 공공성 구현인지, 시청률 제고인지에 따라 개편의 방향은 달라진다.

《열린채널 부산》이 주말에서 평일로 오전에서 오후로 편성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 구현보다는 시청률을 고려한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열린채널 부산》은 KBS1 TV를 통해 매주 금요일 낮 1:00부터 20분 내외로 방송되고 있다. 이러한 편성 시간대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든다.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률보다는 공익성 구현을 위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생방송 이외에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 보기 서비스가 유일하다. 이 점 또한 노출 다양성을 떨어뜨린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미디어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You Tube 채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출 다양성이 보다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열린채널 부산》을 통한 지역 공론장 형성

앞선 연구문제 1번과 2번의 분석을 통해 《열린채널 부산》이 지역의 정보 제공, 공공정책에 대한 고발과 대안제시,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열린채널 부산》이 지역 공론장 형성에 유효한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연구문제3. 《열린채널 부산》은 지역의 공론장 형성에 유효한가?

공론장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이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론장 유형을 확대하였다. 연구문제 1번과 2번을 통해 비교적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공적 사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적 의제들이 감성적으로 제시되면서 공적 의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유형별로 보다 구체화 시키면, <유형 I>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적 공론장 형성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지역의 공공정책을 감시하고 지역의제를 제시하고 있는 유형으로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내용들이 이에 속한다. 방영 된

내용 중에는 지역 뉴스에서 다루어진 사안들도 있지만 지역뉴스는 특성상 시간적인 제약과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심도 있는 사안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따른다(주정민·박복길, 2007).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중요한 장르이지만 지역의 경우 학연과 지연 등의 연고에 의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방송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김연식, 2009). 하지만 《열린채널 부산》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 공공정책과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연구문제 1번과 2번의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역을 매개로 하여 전국적 범위의 공적 의제를 제기하고 있는 유형들도 있었다.

<나는 반성매매 활동가>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여성에 관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반성매매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성매매 업소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선택에 내몰린 여성이 많다는 것을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전달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새엄마한테 당한 것 폭력, 맞는 것도 맞는 거고 언어적인 것도 그랬고 밥을 며칠씩 안줘서 굶기도 많이 굶고 그러다 보니까 더는 못 견디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집이랑 먼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 성매매여성 인터뷰 中

1학년때 친구랑 길을 가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 이상하게 소문이 났어요.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한 학생이라서 그런 일을 겪었다

고.. 피해를 본 건 우린데 부모님과 합의를 해서 우린 학교에서 잘린거야
-성매매여성 인터뷰 中

사회에서 내몰린 여성들은 성매매의 늪에 빠져들고 게다가 그곳은 한번 빠져들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

내가 무시당하기 싫고 거기 안에 있을 때는 내 수입이 나를 포장하는 거니까 빛이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하고 실제 가져가는 돈은 50만원 100만원 뿐이 안되지만 부풀려서 말하죠 -성매매여성 인터뷰 中

반성매매 활동가들은 모든 것, 심지어 성까지도 사고 팔수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 반발하며 그러한 생각이 모든 여성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 주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반성매매 활동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낮은 곳에서의 활동이라고 이야기 한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촉망 받던 가수에서 자진하여 부산역 노숙생활을 하는 다소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이호준씨를 통해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둑질 안하고 강도질 안하고 그나마 노숙을 선택한 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이 막말로 막가는 심정으로 나쁜 짓 해봐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 지겠냐고...노숙 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근데 현실은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노숙을 한 것처럼 모든 것이 꾸며져 있잖아... 한때는 우리 이웃이었고 또 우리 옆집

아저씨 그런 사람들이잖아 이해 할 수 있는 관심, 이해하려고 하는 관심,
그런 관심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호준씨 인터뷰 中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호준씨
의 진심이 담긴 인터뷰는 시청자들이 노숙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우리학교 주변에는?>에서는 학교주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보전
팀 직원의 설명을 통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정책에 대한 취지와 내
용을 소개하고 있다. 학교 주변의 50M이내 절대정화구역에는 유해구역
이 들어올 수 없고 200M이내 상대정화구역 에는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
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주변의 이러한 유해업소에 대한 문제는
비단 부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의 신문기사들을 통해 타 지역에
서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일보 2014.03.17. <http://www.daejonilbo.com>

사행성 게임·불법 성매매...천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몸살
교육당국, 현황파악 '깜깜'...합동점검도 부실

대구일보 2014.05.12. <http://www.imaeil.com>

학교 정화구역서 키스방 영업,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13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키스방
영업을 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A(4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금강일보 2013.09.17. <http://www.ggilbo.co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있으나마나'

16개 시·도 유해시설 금지해제율 60%

경남매일-2013.09.2. <http://www.gnmaeil.com>

경남 학교정화구역 유해업소 넘쳐

유흥·단란주점 등 2천679곳... 전국 4번째 많아

박성호 의원 “국정과제 역행 대책 마련해야”

<강의는 끝났다>에서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비정규직 교수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사자들이 직접 느끼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환경이나 역사 문제와 관련한 주제도 다뤄지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부산을 넘어 전국적 차원의 사회 저변의 문제들을 다루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지역의 의제를 넘어 전국적 차원의 의제 제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린채널 부산》이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 정치적 공론장 형태를 넘어 <유형Ⅲ>과 <유형Ⅳ>와 같은 공론장이 형성 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형Ⅳ>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기초로 친밀한 사이에서 나누는 사적·정치적 대화를 통해 공론장 형성이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잠재적’ 공간이다. 이러한 유형의 공론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지만 <유형Ⅰ>과 <유형Ⅲ>의 공론장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아래 신문기사는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제작한 시민과의 인터뷰 이다.

'3분 뉴스' 편집에 한창이던 신미숙(48) 씨는 이렇게 말했다.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편견의 벽을 허물었고, 내가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느꼈죠. 그런 면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숨겨졌던 세상을 영상에 담아 내 보여줄 수 있게 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행복한 경험을 하고, 또 세상과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퍼블릭 액세스가 더 많이 알려져야겠죠. 물론 방송도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하고요. 이게 우리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요."²⁶⁾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팽씨는 "내 자신의 일상과 고민을 담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처음 팽씨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점이 어떻게 다를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촬영 과정을 통해 결국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²⁷⁾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스스로의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두 인터뷰를 통해 제작자들이 TV를 시청하던 사적 개인인 '소비자'에서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열린채널 부산》에서는 지역민의 삶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

26) 주부 신미숙(48) 인터뷰 - 국제신문, 2009.01.18, 본지 20면, 권혁범 기자 <'카메라 아줌마' 세상 속으로 달리다>

27) 장애인 팽명도(28) 인터뷰 - 부산일보, 2009.01.11., 본지 21면, 임원철 기자 <장애 넘어 세상과 통하였소>

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유형들은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며 환경·문화·소외계층 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적 의제를 공적인 의제로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이전 정치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사적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차이와 적대도 정치의 영역과 범위에 포함 시켜 정치의 범위를 넓혀주는 <유형Ⅲ>:차이·다원주의 공론장 형성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열린채널 부산》은 공론장 형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은 보도 프로그램이다(조성호, 2006; 주정민 외, 2007; 김진영·이상훈·한태학, 2008). 방송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후속 보도 등을 지역 뉴스에서 진행 한다거나, 편성시간을 주 시청 시간대로 옮기고, 다시보기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시청자 노출을 확대 하는 방안 등 보다 실천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매체·다채널 시대 방송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방송은 공론장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지역방송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인 《열린채널 부산》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열린채널 부산》에서 지역성 구현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분석결과 《열린채널 부산》은 기존의 전통적 지역성 개념인 지리적·공간적 지역성이 구현되고 있고, 더불어 사회적·문화적 지역성도 잘 구현하고 있었다.

기존의 지리적·공간적 지역성 구현 형태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유형(탈을 쓴 사람들 외)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육성에 이바지 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둘째, 지역명물을 소개하는 유형(막걸리 한 사발 외)으로 지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친숙한 소재를 선택하여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사례들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문화적 지역성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는 유형(도시의 텃밭 이야기 외)이 있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소개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역민의 삶을 소개하는 형태로 소박한 이웃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울 엄마 이빠라)와 지역의 노인(나도 일하고 싶다), 장애인(내

아들 준수), 청소년(미운 오리 새끼)등 소외 계층의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기존의 미디어들이 지나치게 쉬운 우리 이웃들의 삶을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사적 의제들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켜 공적 의제로 환원 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보이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지역 공공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은 전통적인 지역성이 가장 잘 구현된다고 하는 지역 뉴스나 토론 프로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부산지역의 공공정책에 대한 감시(회색도시 녹색의 꿈을 입다 외), 지역민들의 민원제시(동물원 가고 싶어요 외), 공공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버스 정류장 이려면 어떨 까요 외)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열린채널 부산》의 지역성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가 이루어지는 토대라 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지역민들의 모순과 갈등을 풀어나가며 시민으로 발전되는 것을 지향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지리적·공간적 지역성 개념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지역성도 잘 구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 정치적 공론장 형성은 물론 다양한 공론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열린채널 부산》의 다양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다양성은 제작자·참여자, 내용, 노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먼저 제작자는 소속이 미기재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이는 이름이나 내용을 통해 추론해 보았을 때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라 판단되었다. 직업란에 주부,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표기한 시민들까지 포함하였을 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높았고 대학생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

다. 연령대별 참여 현황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나이가 높아질수록 참여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아쉬운 점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작품이 없다는 것이다. 전체 115편중 고등학생이 제작한 편은 1편 뿐 이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체 출연자는 977명(인터뷰를 한 사람 기준) 이었다.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단체 회원들, 지역 소상공인, 지역의 전문가, 공직자등 다양한 출연진과 장애인, 성매매여성, 다문화 가족, 비정규직 교사등 사회적 약자들의 직접 참여는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내용의 다양성은 지역성 구현 유형 분석을 토대로 어떤 주제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은 주로 문화·행사·축제 소개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는 <6시, 내고향>과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을 위한 정보제공 뿐 아니라 지역명물 소개 등을 통해 유대감 형성을 하게 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민들의 삶은 소외계층과 생활일반·휴먼 등의 주제로 나타났으며 주로 <인간극장>같은 형태의 감성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개인의 사적 의제들을 공적 의제로 전환 시켜주며 차이·다원주의 공론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공적 의제는 정치·경제·사회 부분에서 주로 다루어 졌으며 기존의 저널리즘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출의 다양성을 살피기 위해 《열린채널 부산》의 편성 변화와 다시보기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편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7년 동안 총 8번 편성이 되었고 시간대는 주말 오전에서 평일 낮 시간대로 옮겨졌다. 이는 방송의 다양한 노출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생방송 외에 방송을 다시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의 다시보기가 유일하다는 것도 노출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열린채널 부산》은 지역의 공론장 형성에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은 연구문제 1번과 2번의 분석 결과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분석결과 《열린채널 부산》은 기존의 정치적 공론장 형성에 유효하다는 것과 지역의 공론장을 넘어 전국적 차원의 공적 이슈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정치적 공론장을 넘어 사적친밀/프라이버시 공론장 형성의 가능성과 차이·다원주의 공론장을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열린채널 부산》이 지역성 구현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공론장 형성에 유효한 프로임을 확인 하였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시행 당시 목표를 재확인 하고 공론장을 통한 여론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연구들이 지역방송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은 보도 프로그램임을 밝히고 있다.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된 시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를 지역뉴스에서 점검하고 보도 한다던가, 지역시사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문제제기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더불어 노출의 다양성을 위해 편성 시간을 주 시청 시간대로 옮긴다거나 모바일 미디어 시대에 맞춰 지역 방송국들이 함께 ‘퍼블릭액세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미디어 저변을 넓히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 제작단 양성 프로그램 등을 시민 기자단 모임 형태로 방송국과 함께 꾸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방송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방송이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시청률 자료나 프로그램의 질로 평가되어 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부터 그것이 방영되기 까지 제작자의 성장 과정도 중요하게 평가 되어야 한다. 실제 제작을 했던 사람들이나 출연했던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린채널 부산》만을 분석하여 지역성과 다양성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구현되고 있는가를 비교 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전국적 범위로 진행되는 《열린채널》과의 비교나, 타 지역방송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한 지역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현황 분석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국 내 문 헌-

- 강명현·홍석민(2006). 로컬리즘과 지역방송:사회적 로컬리즘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방송학보』 19권1호, 109~141.
- 구종상·이준호·유승관(2007). 『퍼블릭액세스와 한국의 시민참여방송』.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상희·홍종배(2010). 한국방송의 다양성 지수 연구 :나폴리의 소스, 내용,노출 다양성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1권 1호, 187~227.
- 김세철(1997).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와 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연식(2009). 지역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역할-마산 MBC의 ‘두드릴 고’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0권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7~36.
- 김영수·이근용(2010). 지역방송의 신지역주의와 콘텐츠 전략. 『한국방송학회』 2010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특별세션, 25-42.
- 김용호(1994).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시청자 주권.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33-53.
- 김은규(2002). 한국적 ‘시민 미디어(civic media)’의 유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시민참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 김은규(2010). 지역신문 기자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연구:전북지역 일간신문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4호, 122~156.

- 김재현(1996). 하버마스 사상의 형성과 발전. 『하버마스의 사상』 나남.
- 김진영·이상훈·한태학(2008). 지역공영방송의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방안: 편성패턴, 시청행태, 광고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8권 1호, 81~120.
- 김진웅(2003). 방송공익의 철학적, 제도적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p.6~31.
- 미디어공공성포럼 (2009). 『미디어 공공성』 커뮤니케이션 북스 p.13~14
- 박기성(1997). 한국 지역방송의 생태구성론적 이해. 『지역사회와 언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p.98~118.
- 박민·은수정(2010). 우리나라 퍼블릭액세스 개념 및 유형 확대를 위한 시론적 연구. 『지방자치연구』 제14집 p.137~166.
- 박소라(2003). 경쟁 도입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1989년 이후 지상파 방송 편성표 분석을 통하여. 『한국언론학회』 47권 5호(2003년 10월) p.222~250.
- 박은희(1996). 수용자 참여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 96-2.5
- 박홍원(2005). 미디어와 민주주의:공론장 개념과 그 함의. 『언론학연구』, 제9집, 65-88.
- 박홍원(2012). 공론장의 이론적 진화: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 『언론과 사회』, 20권 4호, 179-229.
- 박홍원·조항제(2010). 공론장-미디어 관계의 유형화.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50호, p.5~28.
- 석미화(2006). 한국 퍼블릭 액세스 연구:시민방송RTV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안정임(1999). 우리나라의 액세스 채널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Monograph99-2』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안혜준(1997). 방송의 지역성개념인식에 관한 연구:지역방송 종사자 및 지역시청자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혜승(2014). 개인의 지역사회 범위 인식 및 지역사회 관여에 있어 지역방송 시청의 역할 『한국방송학보』 28권 2호 176~210
-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2013). 여론집중도 조사보고서.
- 원용진·황상현(2011). 지역방송 연구의 경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0년부터 2010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1권 2호, 285~332.
- 윤석민·오형일·홍중윤(2012). 멀티 플랫폼 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공영방송의 역할. 『방송문화연구』 제 24권 2호, p.7~35.
- 윤영태(2005). 시민미디어 개념의 다원성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5권2호, 308-341.
- 이근용(2010).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지역방송의 사회적 역할.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1권 1호, 49~88.
- 이상기·한혜경·김연식(2005). 방송시장의 규제완화와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생존 전략. 『언론학연구』, 제13권 1호, p.71~104.
- 이상훈(2001).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01-06.
- 이상훈(2011). 신자유주의 시대 공영방송의 위기와 공공영역의 변화.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57호, p.250~266.
- 이수영(1999). 시민미디어 정착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 39-14.
- 이진로(2012). 종합편성채널과 미디어렐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16권1호 195~221.

- 임순혜(2008). KBS<열린채널>프로그램의 공공성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 학교 석사논문.
- 임영호(2002). 공간 이론을 통해 본 한국 방송학의 정체성 문제. 『언론
과학연구』, 5권 3호, p.484~515.
- 임정수(2008). 방송공익의 개념적 파생에 대한 칸트 윤리학적 논의 『한
국언론학회』 p.282~429.
- 정상윤(2000). 지역방송에서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실현방안에 관한 연
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창간호, p.227~247.
- 정상윤(2003). 한국사회 지역언론의 구조와 KBS지역국 정책. 『언론과학
연구』 제3권 1호, p.169~206.
- 조성호(2006). 지역방송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경쟁력 비교. 『언론과학연
구』, 제6권 1호, p.425~462.
- 조항제(2006). 지역방송의 지역성 변화: 개념적 접근. 『한국언론정보학
보』 통권 34호, p.275~353.
- 주정민(2007). 방송통신 융합과 지역방송의 정책이념. 『방송통신융합과
지역방송』 p.13~45 한울아카데미.
- 주정민·강명현(2012).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 분석,
방통융합 미래 전략체계연구 지정 2012-14.
- 주정민·박복길(2007). 지역방송 뉴스특성, 구성방식과 지역성 구현과의
관계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p.304~327.
- 주정민·한진만(2011).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지역성 구현에 관
한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al Industries』, 제11권 제
2호, p.125~140.
- 차재영·유지영(2010). 대전지역 일간지의 지역성 변화 연구: 언론환경 변
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권 1호, p.153~169.

- 최영목(1997). 『방송공익성에 관한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영목(2001).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KBS의 열린채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연구회 세미나.
- 최영목·김명준·서명석(1999). 『국민참여 방송의 이론과 실천』, 언론개혁시민연대.
- 최태주(2006).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방송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 MBC 계열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석사논문.
- 하종원(2001). 지역사회와 퍼블릭액세스 채널, 대전충남 민주언론 운동시민연합, 한국연구재단(NRF)연구 성과물, p.101-110
- 한국언론학회(1995). 한국방송 프로그램의 공영성지수 연구.
- 한균태(2003). 언론학적 관점 『시장원리와 공익성의 조화』 한국광고주협회 p.159~236.
- 한선·이오현(2012). 지역방송의 지역성 개념과 지역성 구현의 문제:광주 지역 방송생산을 중심으로 한 질적연구. 『한국방송학보』, 26권 5호, p.271~306.
- 한혜경(2006). 온라인 공론장과 오프라인의 대인/대중매체 공론장의 연계성:트위터 이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2호, p.618~661.
- 한혜경(2011). 인터넷 공론장의 분할과 극화 완화기제:허브 공간 이용과 보수·진보 공간 중복이용의 효과. 『언론학연구』, 15권 2호, p.391-426.
- 한혜경(2012). 지역 TV뉴스의 질적 수준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연구. 『언론학연구』 제17권 제1호, p.329-363.
- 홍성구(2011). 속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언론과사회』 19권 2호,

p.152~184.

탁진영·서예란(2011). 지역성 구현을 통한 지역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지역민과 제작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1권 4호, p.527~556.

-외 국 문 헌-

Benkler,Y.,(2006).The Wealth of Network. Cambridge:
Yale University Press

Bruns,A.,(2008). Life beyond the Public Sphere: Towards a
Networked Model for Political Deliberation. Information
Pdity 13 65~79

Dannagal G. Young and Russell M.Tisinger(2006). Late-Night
Myths:News Consumption among Late-Night Comedy
Viewers and the Predictors of Exposure to Various
Late-Night Shows.

Habermas,J(1990).Strukturwandel der offentlichkeit, 한승완 역(2001),
나남출판.

Habermas,Jurgen(1981).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장춘익 역(2006), 나남출판.

Linder, Laura R.(1999). Public Access Television, Praeger

Napoli, P. (2003). The public interest obligations initiative: Lost
in the digital shuffl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7(1).

R,위머·J도미니크(1994).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유재천·김동규 공역.

Walizwe&Wiennir(1978). Research methods and analysis:Searching
for relationship. New York:Harper&Row.

A study on the public access program in Busan

With a stance on the ground wave broadcast that it should be more public in a multiple platform era, this study is performed to analysis how the local public access program contribute to create a fruitful public-sphere. One public access programs 《Open-channel Busan》 was reviewed for this study.

After analysis, 《Open-channel Busan》 has two categories of localism. One represents geographical and regional based on local introduction. Another represents social and culture aspects which aspects including peoples' life in Busan area and escalate issue on public policy and suggest solution.

Diversity was analyzed into three part “producers-participators, contents and expo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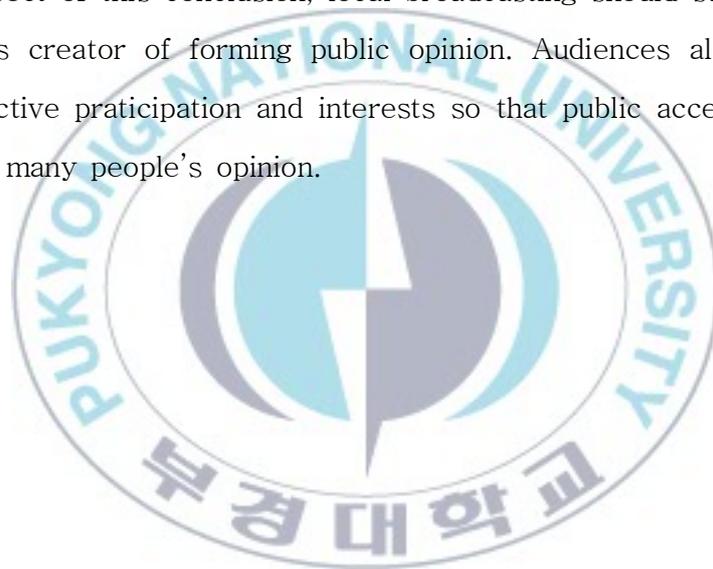
In the producer group, the public has the highest portion and university students and citizen-producers follows. The performers mainly speak out Busan citizens' voice but also talk for social minorities such as disabled, multicultural , temporary workers.

Exposurer diversity through the plan a 《Open-channel Busan》 program and the reviewing services, and it needs to think more exposure strategy. Based on this result, 《Open-channel Busan》 shows it is very effective for forming traditional political public sphere as

escalating issues and suggesting solutions on regional public policy.

As the producers can be involved in the public during the production, they can develop themselves from just an individual citizen to a member of citizens. This relationships open a chance of forming intimacy/private public sphere. And make think about people's problem by emotional access to life of the local people. It helps to create difference-pluralism public sphere.

With respect of this conclusion, local broadcasting should start thinking its role as creator of forming public opinion. Audiences also required their proactive participation and interests so that public access program can share many people's opinion.



부 록

2007.5~2013.12 전체 방송 내용

No	방영 일자	제목	내용
1	2007. 5	리얼 다큐, 메이킹필름 나	단편영화 제작과정을 통해 젊은 영화인들의 노력과 열정을 소개
2	2007. 6	열린문화, 젊음의 거리	젊은이들의 스윙댄스등 부산대 앞 청소년 문화 존 소개
3	2007. 7	오륙도 그 빛과 그늘	오륙도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황폐해진 오륙도의 모습을 담음
4	2007. 8	행복공동체	다양한 국가 어린이들의 생활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 제시
5	2007. 9	모래톱이야기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낙동강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
6	2007. 10	봉석아 ! 잘 왔데이	아들(토비 도우슨, 한국명 김봉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과 재회 후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중요함을 이야기
7	2007. 11	삼각형 그리고 동그라미	초등학교 양심문방구 등의 사례를 통해 시민의식의 실종과 성숙을 강조
8	2007. 12	청학동, 사람 줍 삼시다	대선조선 제2공장의 소음과 분진공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영도구 청학2동 주민들의 이야기.
9	2008. 1	결방	
10	2008. 2	애들아 선생님이랑 놀자	참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모임인 '민속연구회추임새'의 <교육 꽃바람 곳>의 준비과정과 행사내용
11	2008. 3	마천루 아래 사람들, 부산시 폐가 보고서	낙후 지역에 있는 빈집들이 가지는 문제점 제시
12	2008. 4	외계인	한국전쟁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형식, 그리고 돈을 위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제작자들의 실태를

			극영화 형식으로 표현
13	2008.5	가족	장애를 가진 남편과 비장애인 부인의 이야기
14	2008.6	울엄마 이빠라	18년째 뇌졸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친구의 일상의 전달
15	2008.7	연안재해를 막아주는 방풍림	무분별한 연안 개발이 자연재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한 사례 제시
16	2008.8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지역의 전통재래시장의 현황과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어려워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 소개
17	2008.9	잊혀져가는, 그러나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하여	63년 만에 일본 시민단체의 초대로 강제징용 현장을 찾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문제와 한일관계에 대한 고민을 던짐
18	2008.10	부산에서 자출족으로 살아남기	부산지역에서 자전거로 출퇴근 하며 느끼는 교통정책에 관한 문제점 제기
19	2008.11	결방	
20	2008.12	바람이 분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 사라지고 있는 골목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소외를 이야기
21		99세까지 88하게 살자	컴퓨터, 단전호흡, 에어로빅을 배우는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
22	2009.1	연탄 한 장	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소개
23		혁명	비장애인 차별법이 통과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풍자
24	2009.2	나는 반성매매 활동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문제를 반성매매 활동가가 이야기함
25		버스 정류장 이러면 어떨까요?	부산지역 버스 정류장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26		10월의 추억,	휴대폰의 등장으로 밀려난 공중전화의

	2009.	그리고 공중전화	추억과 방치되고 있는 공중전화 부스의 문제점
27	3	내 아들 준수	자폐증을 겪고 있는 아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삶
28	2009.	영상으로 그리는 주부의 꿈	영상을 통해 사회와 교감하려고 하는 주부들의 의지와 꿈을 보여줌
29	4	파리 문화로 도시를 디자인하다	파리시의 예술 정책에 대한 소개
30		내가 원하는 세상	노숙인을 도우며 살아가는 길거리 가수의 삶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31	2009. 5	블로그가 블로거로, 블로거 기자로	전국의 파워 블로거들이 부산지하철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동취재 과정을 소개
32		우리가족 봄 나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따뜻한 모습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 이야기
33	2009.	나의co2투쟁기- 어린이 자연학교	부산녹색연합에서 개최한 어린이 자연학교 참가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 보게 함
34	6	부산 시내 걸어가기	보행자 위주로 교통정책이 변화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의 문제점 제기
35		해안지역의 축복, 바닷가 기후	해안지역인 부산지역의 기후적 장점을 살려 도시를 개발해야 함을 설명
36	2009. 7	온천천, 자연형 도심하천을 꿈꾸다	부산의 대표적 하천인 온천천에 대한 소개와 향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 제시
37	2009. 8	결방	
38	2009. 9	결방	
39	2009. 10	언니! 형! 선생님?	사교육 시장의 대안으로 기획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와 개선책 제안
40		꿈쟁이들의	새로운 미디어인 블로그 교육과정과

		이런(e-learn) 세상속으로	활동을 소개
41	2009. 11	서스테인러블 아트 프로젝트	서스테인러블에 사상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 소개
42		40년만에	태어나서 처음 야구장을 가는 1급 장애인의 이야기
43	2009. 12	숲에서 꿈꾸다	꽃마을 예술제를 준비하는 예술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소개
44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	부산지역 마음연구가의 열정, 활동 소개
45	2010. 1	희(喜)락(樂) 공연여행기	희락원 보육원 아이들이 우수리스크에서 열린 고려인센터 개관식 공연 준비과정과 여정, 역사에 대한 이야기
46		다시 태어나는 영도다리	영도다리의 역사와 영도대교 복원 결정 후 관련된 문제점 지적
47	2010. 2	연륙교개통 그 이후... 지금 가덕도에는	연륙교 개통이후 가덕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호소
48		꿈을 향한 등불	부산지역의 성인야학과 장애인야학을 소개하며 부산시에 지원을 촉구
49	2010. 3	길거리 흡연 이것이 문제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
50		정신 장애인의 꿈	정신 장애인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
51	2010. 4	구포시장 도심에서 꽃피다	구포시장의 역사와 장점을 소개하고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시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
52		우리 학교 주변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한 설명과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점검
53	2010. 5	데프자이언트,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청각장애인 야구단인 데프자이언트팀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어려움 소개
54		장애인들에게 명절은 지옥이다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장애인들,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와 개선방안 제시
55	2010.	녹색자전거	타 지역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부산지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56	6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행자들의 불편을 개선해줄 것을 주장
57	2010.	매축지 교향곡	재개발 이야기만 무성하고 방치된 매축지 마을의 문제점 고발
58	7	아름다운 황혼, 새로운 꿈을 꾸다	부산 노인신문에 대한 소개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들의 이야기
59	2010.	골목에서 불어오는 문화의 바람	40계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인들의 공간, 활동 소개
60	8	사라진 역사, 잃어버린 기억	하야리아 공원 조성과 관련해 역사가 담겨있는 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란다는 주장
61	2010.	탈을 쓴 사람들	수영 팔도 시장 상인들이 함께 만들고 지켜가는 수영야류에 대한 소개
62	9	어둠 속의 빛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행시 어려움을 소개하고 개선책 제시
63	2010.	간다마치의 오래된 기억	해외민족문화네트워크의 큐슈지방 조선인 위령제 소개
64	10	서면, 병들어 가는 거리	쓰레기로 넘쳐나는 서면 거리의 문제점 지적
65	2010. 11	결방	
66	2010. 12	매축지 교향곡	- 2010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우수상 수상 양코르 방송
67		가을, 책의 향기 속으로	도서관과 보수동 책방골목, 독서문화축제 소개
68	2011. 1	부산도심에 나타난 팔색조 가족	구봉산에 나타난 희귀조 팔색조 취재기
69		시장을 누비다	재래시장의 문제, 장단점, 활성화 방안 등을 논리적으로 접근

70	2011. 2	88	청년실업과 부모 세대의 부담과 갈등을 차분하게 전개함.
71		휠체어 배낭여행	<한빛 장애인 자립센터>의 '휠체어배낭여행=진주수목원 나들이' 소개
72	2011. 3	시민영상 헐리우드를 꿈꾸다	시민제작단의 활동을 통해 시청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소개
73		난쟁이가 사는 마을	부산지역의 재개발 지역에 대한 문제점 고발
41	2011. 4	나는 일하고 싶다	일하는 노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던짐
75		책방골목의 어제와 오늘	보수동 책방골목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책방골목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제시
76	2011. 5	강의는 끝났다	대학생이 바라본 비정규직 교수의 문제점을 고발
77		막걸리 한사발	부산지역 산성막걸리에 대한 소개와 막걸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78	2011. 6	Piff without Nampo	피프의 초기 무대였던 남포동이 해운대로 그 중심을 빼앗긴 이유를 진단
79		뿌리에서 미래를 열다	문화지킴이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소개
80	2011. 7	결방	
81	2011. 8	아마존의 꿈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위한 프리마켓 '아마존'에 대한 소개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주장
82		해운대 노란 조형물	시각장애인이 직접 체험을 통해 해운대 해수욕장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의 문제제기
83	2011. 9	우리도 결혼합니다	뇌병변 장애인이 결혼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며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메시지 전달
84		시간이 멈춰버린 마을 매축지	매축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85	2011. 10	결방	
86	2011. 11	특집방송	제1회 부산실버영화제 수상작 3편 방송
87	2011. 12	동해남부선 도심구간 20.8Km 사라질 기차길을 따라서	새로운 노선의 개발로 사라지게 되는 동해남부선 기차역과 주변사람들의 이야기
88		몽계구름 엄마의 노래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학생과 부모님의 이야기
89	2012. 1	살아있으니	봉사활동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장애인 이야기
90		해운대는 지금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
91	2012. 2	대학생 자취론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
92		부산, 그리고 문화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소개하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
93		이 자막이 보이세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해설 영화 소개
94		꿈꾸는 이들의 밤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이야기
95	2012. 3	버려진 정보	무가지로 비치되는 생활정보지가 폐지 수집인에 의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 제시
96		회색도시 녹색의 꿈을 입다	부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녹지조성 사업을 직접 점검
97	2012. 4	고3 우리들의 자화상	고3이 되는 학생이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짐

98		20대에게 투표를 묻다	20대 대학생들의 투표와 정치참여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소개
99	2012. 5	Run	청소부가 꿈이었던 아이가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꿈을 잃었다는 내용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
100		비보호좌회전과 보행신호	비보호 좌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취재
101		청춘을 묻다	청춘이 무엇인가를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인터뷰
102	2012. 6	My Way	마을에서 오랫동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프렌차이저 빵집의 문제점 지적
103		우리 애 첫 보육기관 고르기	4년 만에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된 주부의 육아문제에 대한 고민을 제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지적하며 부산시의 노력 요구
104	2012. 7	보수동 책방골목의 재도약	보수동 책방골목의 재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개선점을 제시
105		동물원 가고 싶어요	부산지역에도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106	2012. 8	결방	
107	2012. 9	도시의 텃밭 이야기	텃밭을 가꾸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텃밭의 긍정적 기능과 효과를 전달
108		이향과 경계의 땅 아미동 비석마을	아미동 비석마을의 유래와 역사가 잘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
109	2012. 10	그들의 노래를 들어줘	부산지역의 다양한 인디문화를 소개하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 제시
110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하철 공익요원의 하루 일상을 통해 그들이 하는 일을 소개
111			
112	2012. 11	반짝반짝 빛나는 그대	열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분들의 활동
113		희망을 노래하는 꿈의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동포 어린이들이

		배움터	방학기간 동안 진행한 한민족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 소개
114	2012. 12	송정천의 최상류	송정천의 최상류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
115		TV 추억 속으로	아날로그 텔레비전에 대한 추억을 돌아봄
116		쓰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작업장을 찾아가 일상을 통한 그의 삶을 조명
117	2013. 1	작은 학교 큰 배움터	장애인 야학인 '참배움터'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
118		오래된 옷장	부산국제시장의 구제 상점 들을 통해 개성 있는 삶 이야기
119		모두 어디로 간 걸까	디지털 시대에 밀려나고 있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여유를 생각해보게 함
120	2013. 2	팟캐스트가 세상을 변화 시킨다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팟캐스트 제작자들의 활동 소개
121		우리 형	취업준비를 하는 형의 일상을 통해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제기
122		학대받는 노인들 누구의 문제인가	노인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소개와 노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곳 소개
123	2013. 3	날라리낙타 부전역에 내리다	부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날라리낙타 공연단 활동 소개
124		행복마을 초장동	초장동 주민 센터 다문화캠프인 오감캠프의 아이들과 한마음 행복센터 어머니들의 모습을 소개
125	2013. 4	미운 오리 새끼 날개를 펴다	학교가 아닌 연극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 가는 고등학생의 이야기
126		1÷1=2	청소년 수련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127	2013. 5	청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3명의 젊은 사장들 소개
128		예술바람	'또따또가' 지역 공간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지역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담음

129		창동 르네상스	창원지역의 창동 예술촌 소개
130	2013. 6	산복도로에서	부산의 산복도로 구석구석을 주인공의 행적을 따라 조명
131		여행	'The 맞나'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에 대한 열정 소개
132	2013. 7	이바구길 탐방	초량 산복도로 '이바구길'을 중심으로 주변의 볼거리 소개
133		고목나무의 사랑	평범한 아버지의 일상을 통해 이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줌
134	2013. 8	오래된 미래	재일교포들과의 교류를 통한 행사 스케치
135		희망을 주는 집	부산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실시하고 있는 'HOPE프로젝트'를 소개
136	2013. 9	갈매길 걸어보셨나요?	부산지역 갈매길을 소개하며 성급하게 길을 만들고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 비판
137		삼국블루스	한중일 50명의 학생들이 3주동안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 소개
138	2013. 10	어느 노병의 소망	<2013 부산실버영상제 대상수상작> 특별방송
139		바람	재래시장인 영도 남항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소개
140	2013. 11	롤러코스터 보다 회전목마	빨리빨리 문화의 문제점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성찰
141		외길 50년	50년간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
142	2013. 12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각종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
143		늦은 나이란 없다	산악인 이상배씨의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삶에 대한 고민제출